

# 공군

2009.05 | www.airforce.mil.kr Vol.371

Monthly Magazine **Air Force**



기획특집  
제주에 피어오르는 또 하나의 공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At a Glance  
Space Challenge 2009 예선대회현장

참공 글터  
아버지 나무-아버지, 세상끝에서다-

# 오분간

이 꽃그늘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기다리는 오분간  
 아카시아꽃 하얗게 훑날리는  
 이 그늘 아래서  
 어느새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여섯살배기가 뛰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흰칠한 청년 하나 내게로 걸어들 것만 같다.  
 내가 늙은 만큼 그는 자라서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마주보겠지.  
 기다림 하나로도 깜박 지나가 버릴 생,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 버린 그의 써물을 향해  
 떨어지는 꽃잎,  
 또는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내 기다림을 완성하겠지.  
 중얼거리는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아, 저기 버스가 온다.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그늘을 벗어난다.

- 나희덕, 「오분간」, 「그곳이 멀지 않다」, 문학동네



■ 시: 나희덕

1966년 논산 출생. <시협> 동인, 시집 『뿌리에게』, 『그곳이 멀지 않다』, 『사라진 손바닥』 등이 있다.

■ 시 해설

아카시아꽃 하얗게 훑날리는 오월입니다. 우리도 아카시아꽃 밑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기다려본 적이 있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생이 다 지나가 버릴 것 같은 날들이 있지요. 서로의 삶을 맞바꾸며 완성되어가는 기다림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또 꽃잎이 지겠지요. - 시인 도종환



표지설명 : 시관생도(나호연, 4학년), 항공과학고 재학생(김선우, 1학년), 그리고 항공소년단원(황재성, 박민지, 각각 초등 4학년 등 미래 공군의 주역들과 F-15K 조종사(소령진) 김용민)

표지사진 : 사진작가 김윤해

## 공군 May 2009 No.371

발행일자 | 2009년 5월 4일(통권 제371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재진 김규진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진 기용호

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04 At a Glance \_ Space Challenge 2009 예선대회현장
- 06 정홍래의 음악산책 \_ 클래식 음악가, 이 사람만큼은 기억하자 1
- 08 기획특집 \_ 제주에 피어오르는 또 하나의 공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_ Welcome to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16 [창군 60주년 특집 4] \_ 5월의 공군역사  
\_ 다시 읽는 「공군」 2  
\_ 공군의 역대 기종을 알아본다 4
- 24 부대동정 \_ 6전대, 조종사 탐색구조연합훈련  
\_ 2009 키 리졸브·독수리훈련 참가 미 증원군, 대구공항 통해 출국
- 26 참모총장 스케치
- 27 공군은 지금
- 30 창공 글터 \_ 아버지 나무
- 34 e-Sports, <ACE> \_ 공군에이스 4라운드
- 37 책마을 \_ 마지막 강의
- 38 Bird-Alert! \_ 봄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알락할미새
- 41 PREVIEW \_ 5월의 문화행사
- 42 Beauty 바이러스 \_ 여드름 전쟁
- 44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수상한 몬스터가 떴다
- 46 World-Wide Vision \_ 사이버 업데이트
- 50 생각하는 그림 \_ '그라민 은행의 창립자'
- 52 이등병이 쓴다! \_ 내 인생의 한 마디!
- 54 전재인의 일상茶반사 \_ 전통 수제차(手製茶)의 분별
- 56 Letters to the Editor \_ 3월호를 읽고서



제31회 공군참모총장배

# Space Challenge 2009

## 예선대회현장

세상 끝까지 <18전비 예선현장>

글 편집실 사진 제3훈비, 제5전비, 제8전비, 제15훈비, 제18전비 정훈공보실

Space Challenge 2009 예선대회가 4월 4일 제3훈비와 제8전비를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예선대회는 전국 각지의 공군 부대 및 야외 시설에서 진행되며, 5월 5일 제주대회를 끝으로 종료된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는 5월 17일 공군사관학교에서 본선을 치르게 된다. 5월의 전설을 꿈꾸는 참가자들의 사뭇 진지한 모습을 담아보았다.



5! 4! 3! 2! 1! <5전비 예선현장>



꼬리 날개 균형이 조금 안 맞네 <8전비 예선현장>

높이 높이 날아라, 나의 비행기 <5전비 예선현장>



누가 누가 오래 날리나? <15혼비 예선현장>



아들아, 이거면 충분해 <3혼비 예선현장>



# 클래식 음악가, 이 사람만큼은 기억하자 1

정홍래 | KBS FM 「송영훈의 가정음악」 방송작가, 서울대 음악학 석사

지휘자 카라얀

**클**래식 음악은 음악만큼이나 음악가들의 이름도 낯설기만 합니다. 생소한 외국 연주자들을 알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가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가만 기억해도 클래식 음악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겁니다.

가장 처음으로 꼽고 싶은 음악가는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 음악가는 사실 나쁜 짓도 참 많이 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지 두 달 만에 25세의 젊은 카라얀은 나치당에 자진 입당해 그들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음악가들이 나치를 피해 망명할 때, 카라얀은 잔혹한 히틀러를 선전하는 음악을 연주했고 그들에게서 '기적의 카라얀'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세상 돌아가는 정세에 밝았던 카라얀은 히틀러가 패하자 북 이탈리아에 숨어 지냅니다. 하지만 권력욕이 강했던 그는 호시탐탐 재기의 기회를 노렸고 조용히 숨어 지내야만 했던

자신을 구제해 줄 레코드 회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1955년에 "나는 독재자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 후 30년 동안 세계 음악계를 평정한 지휘자가 되죠.

그는 영화배우처럼 잘 생긴 외모와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이기도 했습니다. 개인 제트 비행기와 페라리 자동차, 그리고 요트를 소유했던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녔었죠.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 정도로 화려한 삶을 살았고 세계대전 중에 나쁜 행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카라얀의 모습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지휘하던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한때 그가 지휘하던 모습은 수많은 액자에 담겨 벽의 한 면을 장식하곤 했는데요. 클래식 음악은 잘 몰라도 카라얀을 아는 사람은 많았죠. 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을 잘 알았던 음악가였습니다.

카라얀과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음악가



첼리스트 요요마

가운데 주목해야 할 연주자로 가장 먼저 첼리스트 '요요마'를 꼽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중국인 음악가인 요요마는 언제나 친근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가가 친근한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음악만 연주한 첼리스트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아버지에게 교육받았던 요요마는 일찍이 '천재 음악가'로 주목받으며 클래식 음악계를 평정했죠.

일부 비평가들은 아직까지도 요요마를 능가하는 젊은 음악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찍이 클래식 음악계에서 인정받았던 요요마는 새로운 길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이디어가 넘치는 이 음악가는 클래식 이외에도 다양한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은 물론이고 영화음악, 탱고, 브라질 음악, 실크로드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클래식과 결합시킨 음악가죠. 아마도 '크로스오버' 음악을 정착시킨 음악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는데요, 우리에게 '리베르탱고'라는 음악으로 탱고 열풍을 가져왔던 이 친근한 음악가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또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음악가입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의 음악가를 꼽으라면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필먼'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 음악가인 필먼은 연주를 위해 무대에 나올 때면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나와야 합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던 필먼은 다리를 쓸 수 없는 연주자이기 때문이죠. 온몸을 사용해서 연주하는 바이올리

니스트에게 하체를 쓸 수 없다는 것은 크나큰 불행인데요, 하지만 필먼이 더욱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가 이처럼 슬픈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따뜻한 음악을 선사하는 음악가라는 사실입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에 나오던 감미로운 음악을 기억하시는지요. 영화를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작은 소년 '토토'의 이야기와 함께 흘러나오던 따뜻한 바이올린 음악은 필먼의 연주가 단연코 뛰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 애절한 선율을 연주하던 음악가도 바로 필먼이었죠. 그가 연주하는 따뜻한 음색은 그 어떤 음악가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감미로움을 지니고 있는데요, 자신의 슬픔을 따뜻함으로 담아낼 줄 아는 이 음악가는 내면도 참으로 아름다운 연주자입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필먼과 요요마는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클래식 음악에 충실하면서도 대중들을 향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던 음악가였죠. 자신의 분야에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사람들과 음악을 나누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깊이와 넓이를 모두 갖춘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깊고도 넓은 시각을 지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필먼

# 제주에 피어오르는 또 하나의 공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자료제공 공군본부 공보과, JDC 홍보팀 원고정리 편집실

**천**혜의 아름다운 땅 제주도에 공군의 전투기와 헬기, 시뮬레이터 등 역사물을 전시하는 항공우주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내 32만 9,000제곱미터의 부지를 마련해 2009년까지 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마치고 2010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오는 2013년에 관람객을 맞이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약칭 JDC)가 2012년까지 1천324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항공우주박물관의 기공식이 이번 어린이날에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약 3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고 에어쇼가 펼쳐지는 하늘에 장관을 연출할 것이다.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되기까지

공군은 항공기와 탑재장비 등 주요 불용 자원들을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08년 7월 항공우주박물관 유치에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안을 공모하였다. 제주를 포함한 5개 광역지역자치단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 제안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08년 11월 18일 최고의 평가를 받은 제주를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지로 선정하였다.

## Why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고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으로써,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자치권을 획득했다. 또한 관광, 1차 산업, 교육, 의료 및 첨단 산업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규제 자유지역, 자치모범지역, 청정환경 보존지역, 세계평화의 섬,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제주 비전 2011의 지표에 따르면, 2011년 제주의 총인구는 2002년에 비해 12.3% 증가된 62만 명, 관광객 수는 120% 증가한 990만 명이 될 것이다. 국제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은 1,88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하나의 독특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파일럿과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명소가 됨은 물론 우수한 인재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인근에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오설록 박물관, 중문 관광단지 등과 연계한 시설과의 운영 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 마케팅 활동을 통한 효율성을 증대시켜 수많은 관광객 유치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주요시설 및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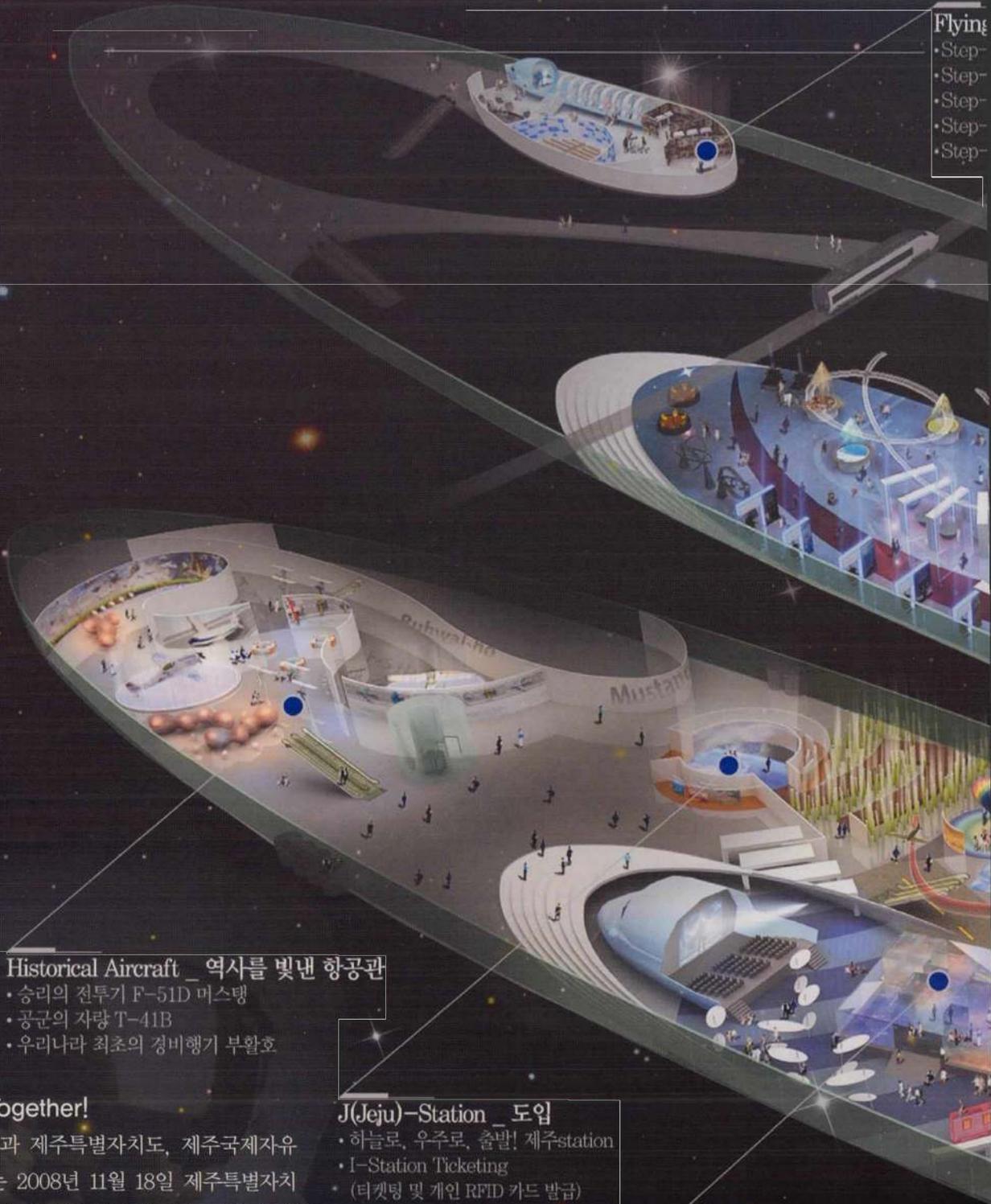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는 기본적인 컨셉은 하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오락적 기능을 보유한 Edutainment형 시설이다. 하늘, 우주, 공군에 대한 교육기능을 갖춘 시설로 파일럿 트레이닝, 시뮬레이터, 4D Theater 등 체험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콘텐츠가 들어선다. 야외전시장은 5개의 테마(고공전투, 비행훈련, 탐색구조비행, 군용에어버스, 보이지 않는 힘)를 가진 야외 공원으로 항공기, 공군의 전시물을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 하늘에 있는 항공로는 형상화하여, 이륙하고 착륙하며 상승, 하강하는 느낌을 살린 Outdoor Monorail은 야외 전시장 및 사업부지 전체를 이동하며 전시 및 관람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제주의 밤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 천문대를 설치하고, 제주의 아름다운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Flying

- Step-
- Step-
- Step-
- Step-
- Step-



**Historical Aircraft \_ 역사를 빛낸 항공관**

- 승리의 전투기 F-51D 머스탱
- 공군의 자량 T-41B
- 우리나라 최초의 경비행기 부활호

**Dreaming Together!**

대한민국 공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08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군에서는 항공기, 방공무기, 탑재장비, 공군 역사물, 시뮬레이터 및 기타 각종 우주관련 전시물을 제공한다. 또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공군예비역이 항공우주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뮬레이터 교관 등의 분야에 참여시켜 외국의 항공우주박물관처럼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맡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부지 및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J(Jeju)-Station \_ 도입**

- 하늘로, 우주로, 출발! 제주station
- I-Station Ticketing
- (티켓팅 및 개인 RFID 카드 발급)

**Space City \_ 우주관**

- Space-1 준비 인류의 꿈 우주개발
- Space-2 발사 우주로 향한 희망의 첫걸음
- Space-3 도킹 성공적인 도킹을 위한 현상의 짝궁
- Space-4 ISS에서의 우주 생활 이소연의 우주 리포트
- Space-5 귀환 지구 귀환 그리고 미래로...

### 비행시물레이터체험관

훈련을 시작하다  
훈련하다  
상황에 투입되다  
고속도로로 도약하다  
예외 만나다

### Theater Station \_ 4D 플라네타리움

- 항공우주관련 입체 영상 체험
- 공군 전투기 비행 체험

### Training Station \_ 트레이닝 센터

- 파일럿 트레이닝
- 우주 비행사 훈련

• 우주수업

2013년 첫 관람객을 받을 때까지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 공군은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한 각종 지원, 그리고 JDC는 사업계획 수립, 박물관 건축, 항공기, 장비와 같은 전시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는 만큼, 많은 준비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그러나 서로가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온 공군인과 제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누구나 가고 싶은, 또 원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으로 조성해나가길 기대해 본다. ㉮

# 2F

### Sky City \_ 항공사관

- Sky-1 하늘을 향한 꿈과 도전
- Sky-2 비행의 원리
- Sky-3 비행 체험
- Sky-4 천문대

### Air Force City \_ 공군역사자료전시관

- Air force-1 Skywalkers ! 하늘을 걷는 자들
- Air force-2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_ 공군의 역사
- Air force-3 출격 3분전! \_ 하늘의 무적, 공군
- Air force-4 공군으로 가는 길 \_ 하늘사랑, 공군사랑
- Air force-5 공군 체험 \_ 파일럿(Pilot) 탑건

# 1F

# Welcome to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편집실 사진 JDC 홍보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항공우주박물관이 타 시·도보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에 건립되는 것에 대해 말이다. 그러나 JDC 개발 2팀은 제주만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작전을 펼쳤고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JDC가 조성 중인 제주 신화역사공원 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번 작전을 주도한 개발 2팀의 강승무 팀장을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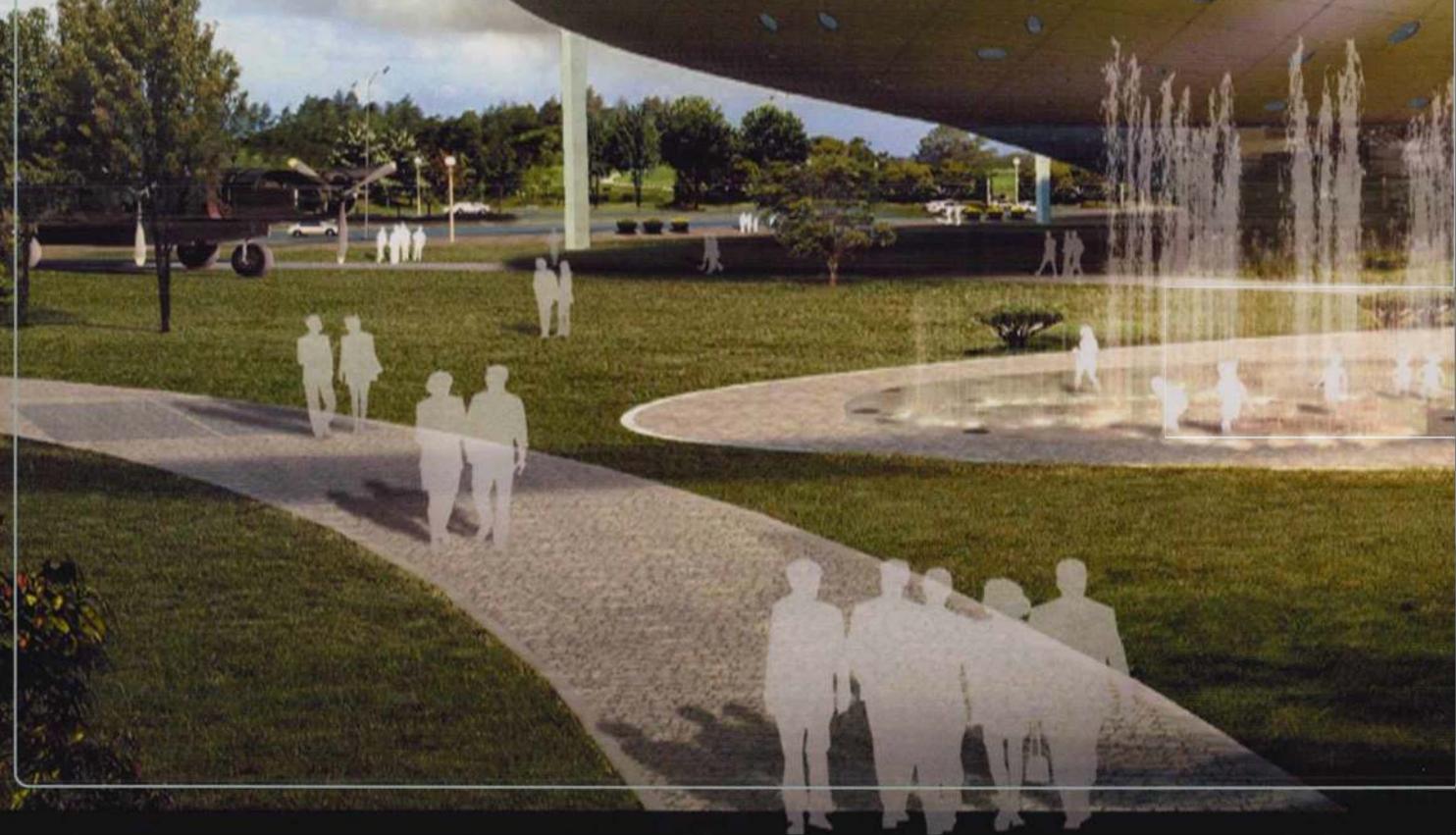
## Q.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A.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사업의 상징성이나 경제적 효과, 제주관광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주관한다는 점에서 사업유치의 명분이나 실익도 충분하다고 보았고, 특히 저희가 가진 사업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주개발센터는 박물관 건립이 적절한 토지를 이미 확보하였고, 인허가가 완료되어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착공 중입니다. 아울러 국가 공기업인 개발센터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추진가능성이 성공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10월에 실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후 최종협상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Q. 박물관엔 어떤 전시물이 들어서고,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에 공군 예비역이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신다면?**

A. 제주에 건립하게 될 항공우주박물관은 건물 직경 200m, 높이 25m의 규모로 항공기 동체를 형상화한 형태로 세워지게 됩니다. 전시공간은 실내와 야외로 나누어서 계획되었는데, 실내공간은 2개 층으로 구성해서, 공군역사자료 전시관, 우주관, 4D 영상관, 4D 플라네타리움, 트레이닝 센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박물관은 단순 관람형, 열람형이 아니고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복합한 체험형 공간입니다. 따라서 파일럿 트레이닝, 시뮬레이터, 4D Theater 등 체험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의 시설이 도입됩니다.

야외공간에는 항공기, 공군의 전시물들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는데, 역시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5개의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체험형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군 예비역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파일럿 트레이닝의 교관, 교육프로그램, 역사자료 전시관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군 예비역의 참여가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운영계획상 정규직원의 40% 정도는 공군 예비역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JDC 개발 2팀, 강승무 팀장

**Q.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관련 최고의 박물관으로 기대가 되는데, 특별히 제주도에 건립되는 의의와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A. 제주는 항공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제주방문은 비행기로 시작해서 비행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 당시 공군사관학교가 제주도 대정지역으로 이전한 전력으로 인하여 현재도 제주 대정초등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에 날개달린 장수가 태어난다는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걸 보면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열망이 제주지역에서 구체적으로 강한 형태로 전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주의 항공우주박물관은 역사적, 실질적인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기대효과로는 제주관광의 활성화와 공군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주에는 현재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박물관이 개장하는 2013년에는 7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광객은 제주에서 보고 즐기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공우주박물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박물관 시설은 제주관광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제주관광의 수준을 상승시키고,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는 갈수록 수학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저희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간 방문객 250만 명 이상, 내부수익률(IRR) 13.3%, 자본회수기간 9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Q. 박물관 외부 주요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항공우주박물관은 약 10만평의 부지에 건립하게 되는데, 직경 200m의 박물관, 야외전시장, 모노레일, 생태 산책로, 공군호텔로 구성됩니다. 박물관 내부시설에 대해선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야외전시장은 5개 테마전시프로그램으로 운영되게 되는데, 고공전투, 비행훈련, 탐색구조비행, 군용에어버스, 보이지 않는 힘의 5개 공간입니다. 이러한 테마는 공군에서 제공되는 50대의 전투기 등을 단순 평면으로 전시하지 않고, 비상하는 형태, 이륙하는 형태, 비행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전시함으로써 구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을 약 1km의 길이로 운영할 예정인데, 야외 전시공간과 실내 전시공간을 관통하게 되며, 편안하게 실내, 실외의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자동차 코스, 주변 자연녹지의 산책로, 모형 우주선 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Q.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A. 저희 개발센터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저희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형 개발사업, 관광 육성, 제주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항공우주박물관이 건립되게 될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전국 광역 프로젝트로 선정된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 타운 사업,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서귀포 미항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소 30만평에서 130만평에 이르는 대형 개발 사업으로서 제주관광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 국내유일의 내국인 면세점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저희 개발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Q. 오는 2010년에 착공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A. 여러 개의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제주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피력한 바와 같이, 저희는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명소로 개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제1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세부일정

■ 대주제 : “한국 공군 창군 60주년과 새로운 60년을 향한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구분	시간	주 제	발 표	사회	
등록	09:30 ~ 10:00	등록 및 프로그램북 배포			
개회식	10:00 ~ 10:30	○ 사 회 : 연세대학교 교수(최종건) ○ 개 회 사 : 연세대학교 총장(김한중) ○ 환 영 사 : 공군 참모총장(이계훈)			
휴식	10:30 ~ 10:40	휴 식			
1부	10:40 ~ 12:20	<b>소주제 ① : 전략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공군의 위상</b>		· 사회 : 황병무 (국방대 교수)	
		1)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전략 변화	노훈(KIDA)		
		2)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와 美 공군의 전략개념 변화	포 레 스톼 모 건 (Forrest Morgan, 美 RAND 연구소)		
		3) 한국 안보전략의 변화와 한국 공군 60년	배양일(연세대 교수)		
오찬	12:20 ~ 14:00	연세대 총장 주관			
2부	14:00 ~ 15:40	<b>소주제 ② :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와 공군의 전략적 과제</b>		· 사회 : 함택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1) 중·일 군사전략의 현황과 전망 : 국방백서 비교 분석	박영준(日), 박창희(中)(국방대학교 교수)		
		2) 동북아 군사안보 환경과 항공우주력 : 일본의 시각	야스오 오쿠시(日 항공자위대 예비역 중장)		
		3) 미래 전략환경 변화와 지역안보 : NATO 공군전략의 사례	제임스 로브웰(James Lovell, NATO 본부)		
휴식	15:40 ~ 16:00	휴 식			
3부	16:00 ~ 18:00	<b>소주제 ③ : 새로운 60년 : 한국 공군의 미래와 과제</b>		· 사회 : 문정인 (연세대 교수)	
		1) 전장환경의 변화와 신무기체계의 정치·경제 : 정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차두현(KIDA)		
		2) 국방개혁의 현실과 과제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		
		3)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한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공군비전 2030)	전투발전단		
만찬	18:00 ~ 20:00	참모총장 주관			



자료제공: 군역사기록관리단 원고장리 편집실

### 항공부대 창설(1948년 5월 5일)

해방 후 국내의 항공인들은 조국의 하늘을 방위하는 공군이 창설되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한국항공건설협회를 설립하여 미군정청과 항공부대 창설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항공사상의 계몽과 보급을 위하여 전국 순회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공군 태동을 위한 심 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갔다.

그 결과 수년간에 걸친 인내의 결실로 미군정청은 조선경비대 산하에 경항공기 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오랜 숙원이던 항공부대의 탄생은 미군정청이 항공계 지도자들에 대해 훈련병의 신분으로 미국식 훈련의 이수를 요구함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였다.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 유능한 조종사와 고급 지휘관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항공계 지도자 7인(흔히 창설간부 7인으로 불리는)에게 미군정청의 이같은 요구는 너무나 굴욕적인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항공부대가 창설만 된다면 병이면 어떠하냐”는 최연장자 최용덕의 용단으로 창설간부 7인은 두 달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사관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5월 14일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통위부(국방부 전신) 직할로 태동한 항공부대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 비록 항공부대가 단 1대의 전투기 없이 초라한 날갯짓을 펼쳤으나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거대한 거목의 뿌리가 되는 뜻 깊은 역사의 시작이었다.



항공부대 창설의 주역인 7인의 모습  
(상단 왼쪽에서부터 최용덕, 장덕창, 이영무, 박범집, 김정렬, 이근석, 김영환)

### UH-60 헬기 도입(1991년 5월 6일)

우리 공군은 전천후 탐색구조 작전 수행능력과 레이더 장비에 대한 긴급 공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6일 UH-60 헬기를 도입하게 되었다.

울곡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인수한 UH-60 헬기는 1차 도입분으로서

#### UH-60 성능

최대/순항속도(KTS)	190/145	최대중량(LBS)	20,250
항속시간	2시간 30분	출력(SHP)	1,940×2
탑승인원	14명	인양능력	3.5ton



1991년 5월 6일, 제5전술공수비행단 예하 233구조비행대대 주기장에서 거행한 UH-60 헬기 도입식 모습



원제작사인 미국의 시콜스키社의 완제기를 들여왔으나 잔여 도입분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국산화를 통한 항공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동시에 국방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1,300여 억원을 투자하여 ○○대를 도입한 UH-60 헬기는 우리 공군이 탐색구조 전문용도로 형태변경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기종명칭을 HH-60(1995년 9월 15일자)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용해 오고 있다.

### 제3훈련비행단 창설(1968년 5월 10일)

1968년 초반까지 초등 및 중등비행훈련은 공군사관학교 예하인 공군비행학교에서, 고등비행훈련은 제1전투비행단<sup>1)</sup>이 각각 담당해 왔으나 교육체계 단일화를 통한 효율적인 비행교육 수행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군본부 직할부대로 제3훈련비행단을 1968년 5월 10일 대구기지에서 창설하게 되었다.

비행학교(T-28), 제16비행교육대대(T-33), 제17비행교육대대(F-86F)를 근간으로 안정적인 삼각편대를 확립한 제3훈련비행단은 창설 초기 단본부와 제17비행교육대대는 대구에, 제16비행교육대대와 비행학교는 광주와 김해기지에 각각 주둔함에 따라 현재의 터전인 사천기지와는 무관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제3훈련비행단의 사천시대는 1969년 9월 10일 김해기지에서 비행학교가 이동해오면서 열리게 되었으며 1975년 5월 1일 기지 확장개발의 결과로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단본부와 잔여부대가 합류하면서 정예 조종사 양성의 요람인 제3훈련비행단은 사천지역에 온전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대구기지에서 거행한 제3훈련비행단 창설식 모습

### 북한공군 이철수 대위 MiG-19기로 귀순(1996년 5월 23일)

1996년 5월 23일, 정적을 깨는 공습경보가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공습경보의 원인은 북한공군 1비행사단 57연대 2대대 소속의 책임비행사로 근무하던 이철수 대위로 황해도 웅진반도 북쪽 태탄지역 상공에서 훈련 중 기수를 돌려 귀순한 것이다.



귀순직후 편안한 표정으로 담소 중인 이철수 대위

우리 공군은 평남 온천비행장을 이륙한 이철수 대위의 MiG-19기를 포착하여 귀순의사를 확인하기까지 6분의 찰나같은 시간 동안 적시에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초계 중인 전투기를 급파하여 귀순기를 성공적으로 유도하는 등 철통같은 대공방어태세를 유지하여 필승 공군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이날 자유의 품에 무사히 안착한 이철수 대위는 대한민국 공군소령으로 임관하여 공군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 유치곤 대위 6·25 전쟁 중 한국공군 최초 200회 출격(1953년 5월 30일)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11일 강릉, 한국공군의 첫 번째 단독출격작전과 함께 전투출격을 시작한 유치곤 대위는 1952년 5월 18일 100회, 1953년 5월 30일 200회 출격기록을 수립하고 휴전시까지 총 203회의 전투출격을 실시하여 6·25 전쟁 중 한국공군 조종사로는 유일하게 200회 이상 출격의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㉑



유치곤 대위의 200회 출격기념식 사진

1) 1953년 2월 15일 당시 사천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1전투비행단은 공군력의 기본인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비행단 창설의 필요성에 따라 제1훈련비행단으로 개편하였으며, 1964년 6월 1일 제1전투비행단으로 재편되었다.

# 다시 읽는 「공군」 2

- 雜誌 아닌 寶石, 『코메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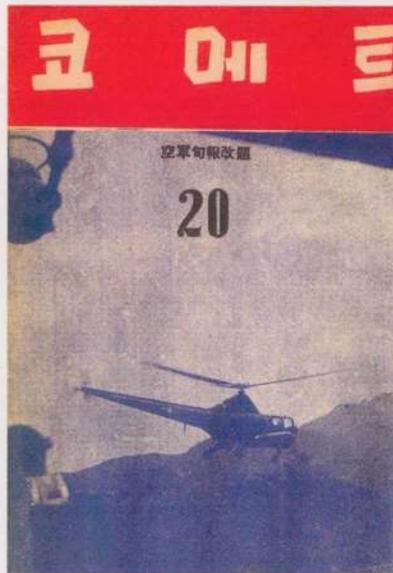
글 소령 리동섭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 『코메트』는 1호가 없다?

세상에 처음이 없는 것은 없다. 어떤 형태건 간에 최초, 1번, 1호가 있어야 그 다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코메트』는 1호가 없다? 맞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코메트』 첫 호는 20호의 이름을 달고 나왔다.

뭔가 착각한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은 독자도 있겠지만 사실이다. 우측 표지는 4285년(1952년) 11월 15일에 첫 선을 보인 『코메트』 통권 20호의 표지이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4286년(1953년) 1월 15일에 발행한 『코메트』는 통권 2호의 이름을 달고 있다.

뭐지? 20호 다음에 2호? 그럼 그 다음 호는 0.2호인가? 발행한 날짜를 보고 눈치 채 독자도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한 『코메트』 통권



〈『코메트』 20호 표지〉



〈『코메트』 2호 표지〉

20호가 바로 창간호인 코메트 1호이다.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는 『코메트』 20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편집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신인 『공군순보』가 제호와 형식을 바꾸어 『코메트』로 재탄생한 것이다. 제호를 변경한 사유는 당시의 발행인을 아직 만나보지 못해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 공군 정훈감실에서 기존에 발행해 오던 신문과 잡지를 쇄

신하려던 신임 정훈감의 기획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지난 4월호 “다시 읽는 공군” 첫 기사의 『공군위클리』 창간사를 보면 『공군위클리』도 유사한 시점(4286년 1월 17일에 창간호 발행, 세부내용은 월간 「공군」 4월호 28page 참조)에서 기존의 『에어맨스 위클리』를 흡수하여 새롭게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 『코메트』 통권 20호, 144면



『空軍旬報』는 앞으로 一대 飛躍을 할 것이다……. 이것은 前號에 誇張 豫告한 말이었다. 최근 약간의 前進이기는 하다. 여태까지는 『旬報』의 刊行을 實行 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그리하여 이번 新任監의 卹意下에 이흥부 係將校들의 誠意下에 이흥부 터 백서 있는 『코메트』로 改題하고 豐富한 內容과 참신한 體裁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우선 이것이다. 첫순에 배부르지만 주창 經費에 따르는 磅路로 不本意한 점이 허다하다. 무슨 일이고 『協助』 『協力』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니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메트』를 위하여 아낌 없는 원조를 권하되 바라는 바이다. 그 『協助』와 『援助』(如何로든) 『코메트』는 더 항그림고 아를 다울 수 있는 雜誌로서 기관들의 寵兒 노릇을 할 것이다. 원래는 지난 1월 1일 航空記念日을 期하여 몇 개 내기로 한 것인데 그 불행하게 되어 약간 士氣阻喪한 바도 있었다. 우리 金貞烈總參謀長閣下는 이번 1월 15일 自進辭任의 建白을 하였다. 우리들을 다시 한번

★編輯後記

감탄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社會全般에 影響하게 될 萬사들의 愛軍愛國心에 湧蘇濟가 되었다. 『編纂』는 다시 제 자리에 돌아가서 앞으로 더 좋은 『코메트』 만들 것을 期約하며 이번 執筆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相)

4285년 11월 11일 이혜  
4285년 11월 15일 발행  
空軍旬報改題  
코메트 通卷 20號  
발행: 空軍本部政訓監室  
발행인: 徐子壽  
편집인: 崔在寬

※ 본 글에 옮긴 기사들은 원문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현재와 다른 표현 또는 잘못된 표기도 그대로 실었음.



잠깐 짚고 넘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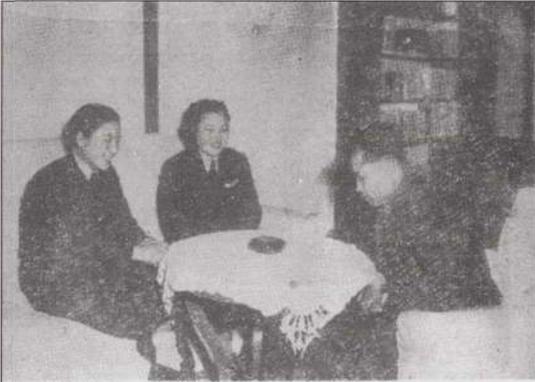
시원한 半圓	
	박목월
적당히 팔을 저으며 너는 거리를 가리라 먼 사람이야.	내 팔에 어리는 슬픈 운명의 그 보랏빛 그림자처럼...
적당히 팔을 저으며 나는 거리를 걷는다. 먼 사람이야. 먼 사람이야. 내 팔에 어려오는 그 서운한 半圓	그림자처럼 나는 팔을 消失한다. 손을 들어

좌측의 시는 박목월 시인의 작품으로 1957년 초기에 『코메트』에 기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대시학, 2009. 1. 8., 허만하 시인) 하지만 그 시기의 『코메트』에는 해당 작품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쟁쟁했던 문인들의 작품들이 군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었으며, 그러한 작품활동은 장병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코메트』를 읽을 때 매호마다 누구나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보았음직한 이름의 유명작가가 쓴 문학작품과 시평(時評)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창공을 꿈꾼 여인들

하늘을 사랑한 사람들은 문인뿐만이 아니었다. 현재 공군에는 다수의 여성장교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선 조종사로 활약하고 있는데, 창군 초기에도 그런 꿈을 가지고 여자항공대라는 이름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1949년 2월 15일 김포기지에서 15명의 인원으로 출발한 여성항공대는 '50년 2기생 39명을 포함해 55명에(기타 1명 포함) 이르렀다. 그러나 부대장이었던 이정희 중위를 포함한 상당수가 전란 중에 피랍(근거 : 생존자 증언)되거나 결혼을 이유로 제대하여 5년이 지난 1954년에는 김경오(金景梧) 중위와 윤금자(尹金子)복무기록 등 공식자료에는 윤금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나 인터뷰 기사에는 윤금숙(尹金淑)으로 표기되어 있다.] 준위 단 두 명의 장교만이 남았다. 그래도 이들은 하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후진을 양성해 언젠가 다시 여성항공대를 부흥시키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코메트』 9호, 98, 99면>



## 女子將校의 希望은

### 오직蒼空에

女子航空隊創立 5週年記念對談會

日 時 4287年2月20日 13:30

場 所 與軍本部政訓監室

— 參 席 人 —

女 航 · 金 景 梧 中 尉

尹 金 淑 准 尉

司 會 · 小 說 家 朴 榮 澁

<사 진> 左로부터

金 景 梧 中 尉    尹 金 淑 准 尉    朴 榮 澁 氏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덕분인지 김 중위는 대답을 마친 바로 다음 달 1일에 대위로 진급하였고, 20일에 공군본부 비행반원으로 전속하여 6개월 10일 동안 근무하면서 L-4로 20여 소터의 비행훈련을 받고 단독비행도 성공하였다. 창공을 향한 그녀의 꿈이 결국 이뤄진 것이다. 전역 후에도 항공분야에 활동을 지속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항공협회 명예총재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남편감을 묻는 질문에 매우 수줍어하면서 경제력은 상관없고 똑똑한 사람이면 된다고 하던 윤 준위는 안타깝게도 창공을 향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달 3월 14일, 24세의 나이로 대구병원에서 사망했다. ㉞

〈『코메트』 9호 P98, 99〉 기사 원문

女子將校의 希望은 오직 蒼空에  
女子航空隊創立 5週年記念對談會

日時：4287年 2月 20日 13:30

場所：空軍本部政訓監室

參席人

女航：金景梧 中尉, 尹金淑 准尉

司會：小說家 朴榮濬

2月 20日은 金中尉, 尹准尉 兩 將校가 空軍에 入隊한 5週年 記念日인 同時에 女子航空隊가 創設한지 5年이 되는 날이다. 더구나 5年 동안에 女軍으로 兩 將校만이 남아 있다는 事實은 兩 將校를 위하여 또는 空軍을 위하여 축하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小說家 朴榮濬氏와 鼎談을 하여 그들의 過去를 듣기로 했다.

—尊稱略—

★ 飛行機 타구 싶어서

朴, 이야기에 突入하겠습니다. 入隊하셨던 그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든가요.

金, 4282年 2月 20日이었습니니다. 그러니까 5年前 바로 오늘이지요.

朴, 그때에는 몇 名이나 入隊했습니까? 그때에는 女子航空隊라고 했지요.

金, 처음에는 女子教育隊로서 教育을 받고 있다가 차차 지나는 동안 女子航空隊로 昇格을 했지요. 1期生이 15名이었습니니다.

朴, 志願할 때에는 무엇을 志願하였던가요. 飛行士였던가요?

金, 물론 飛行士를 志願하고 들어왔었지요.

朴, 그러니까 飛行士가 되고 싶어서 들어오셨군요. 그런데 어때요, 飛行機를 타보셨습니까?

金, 네, 分解組立도 해보았고 整備도 해 보았고 또 飛行機에 올라가서 제법 만지작 거려도 보았습니니다.

朴, 그런데 그 당시에는 軍에 대한 인식이 약했을텐데요.

金, 전혀 없었지요 뭐.

朴, 軍隊에 特히 들어오고 싶어한 動機는?

尹, 單純히 飛行機타고 싶어서지요. 대부분이 그러한 動機였을 겁니다.

朴, 매우 先進하셨군요.

尹, 그 當時는 女子飛行士라는 것을 꿈에도 꾸지 못할 때였으니까요. 要是 飛行機를 탑으로서 아름다운 우리 三千里江山을 날라다니겠다는 抱負였지요.

朴, 그렇다면 入隊하고 난후 무척 失望을 느꼈겠군요.

尹, 그렇지요, 失望도 많았습니니다.

朴, 앞으로도 그러한 方面으로 開拓해 보실 作定이십니까?

金, 네 開拓해 나감으로서 最高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겠다는 希望 속에 邁進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達成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 女子로서는 몇期까지 있었습니니다.

金, 二期까지 있었습니니다. 다 合해서 60名이었지요. 그나마 事變통에 拉致된 사람도 있고, 또 家庭形便으로 結婚한 사람도 있고해서 現在는 통털어 보아야 우리 둘 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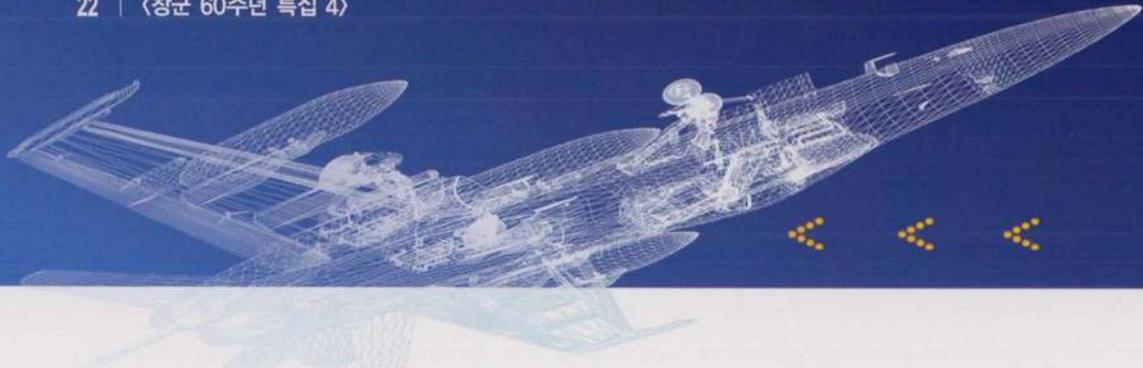
朴, 두 분만이 남았다는 것이 펍 재미있는 일일 것 같은데…… 어째서 두 분만이 남았을까요.

金, 意志가 굳어서인가 보지요. 初志一貫으로요.

朴, 梯隊한 사람의 大部分이 結婚했지요.

金, 네 大部分이 家庭을 가졌어요.

—후략—



#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4

자료제공: 군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의 편집실



①

## T-28 Trojan 중등비행훈련기

1950년 최초로 생산되었으며 전후방 조종석을 갖춘 2인승 중급 훈련기다. T-28A 훈련기는 North American社가 제작한 단발 프로프(Prop) 항공기로서 제10전투비행단이 공군 현대화 계획에 의거하여 F-86F Sabre 전투기를 운용하게 되자 조종사 양성을 위해 1960년 12월 20일, 군원으로 도입하여 29년간 중등비행훈련 및 전술항공 통제 임무를 담당하였다.



②

이후 T-28A 훈련기는 대한민국 공군이 중등비행훈련용으로 T-37C 훈련기를 운영하게 되면서 훈련기로서의 활용도가 저조해지자 1982년 북부 기지전력을 보강하고 지상군 근접지원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북극성 계획에 의거하여 제8전술통제비행단(제8전투비행단 전신) 236비행대대에 배속되어 전술통제임무를 수행하였다.



③

1989년 4월 25일, 최종비행을 갖고 일선에서 퇴역하였으며 1989년 6월 1일부로 제3훈련비행단으로 예속변경과 동시에 236전술통제비행대대를 비행교육대대로 개편하고 운용기종을 T-37C 훈련기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자 T-28A 훈련기는 1989년 4월 25일 일선에서 퇴역하였다.



④

## T-28A Trojan 성능<sup>1)</sup>

최대속도(KTS)	300	실용상승한도(Ft)	37,240		
순항속도(KTS)	270	상승률	3,854		
항속거리(N/M)	1,150	승원(명)	2		
전투행동반경(N/M)	380	후퇴각(도)	작음		
제원	기폭(Ft)	40' 8"	무장	기총	12.7mm×2
	기장(Ft)	34' 6"		로켓	5"×6
	기고(Ft)	12' 7"		폭탄	500lb×2
엔진	종류	Wright R-1820×1	유도탄	AIM-9×2	
	추력(LB)	1,425hp			

1) 출처: 항공기 성능지 1971(공군본부 정보부 발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 L-5 항공기 도입(1948. 10. 14.)

L-5는 1948년 10월 14일, 대한민국 공군의 전신인 육군항공대가 미군으로부터 L-4 항공기에 이어 10대를 인수한 전후방 조종석의 2인승 연락기다. 대한민국 공군이 최초로 도입한 L-4 항공기는 항속거리가 짧은 탓에 작전지원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1948년 10월 14일, L-4 항공기보다 항속거리가 더 긴 L-5 항공기가 도입되었다.

1차로 선 도입된 L-5 항공기 2대는 지리산, 백운산 등으로 흘러 들어간 여순반란 사건 잔당 토벌작전에 참여하여 정찰, 긴급연락, 지휘관 수송, 전단 살포 등의 지원임무를 수행하였고, 다음해 1월 발생한 제주도 폭동진압 작전에도 6대가 출동하였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날개에 육군용 2.36인치 로켓포를 장착하고 토벌작전에 참여하여 지지부진하던 전황에 활기를 불어 넣기도 하였다. 6·25 개전 초기에도 L-5 항공기는 T-6 건국기, L-4 항공기 등과 함께 출격하여 적군을 저지하기 위해 후방석의 승무원이 목측(目測)으로 수류탄과 포탄을 적진에 투하하는 등 맹렬히 분투하였다. L-5 항공기는 1951년 후반기부터 전투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용으로 활용하다가 1955년에 퇴역하였다. ㉑

- ① T-28A 도입식 모습
- ② T-28A에 탑승한 조종사
- ③ T-28A 훈련기의 편대비행 모습
- ④ T-28A 훈련조종사들
- ⑤ 활주로의 T-28A
- ⑥ 1989년 4월 25일, 제8전투비행단 제236전술항공통제비행대대 주기장에서 단장 정판중 준장과 제8전투비행단 조종사 및 정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T-28A 항공기 퇴역식
- ⑦ L-5 항공기는 1948년 10월 14일, 2대를 최초 도입한 이후 동년 12월까지 총 10대를 도입·운영하였다.
- ⑧ L-5 연락기 비행훈련 모습
- ⑨ 1950년 당시 정보부대에 전시된 L-5 항공기
- ⑩ 사진은 1948년 10월 14일, 미군으로부터 인수 후 L-5 연락기 앞에서 미군과 기념촬영



# 6전대, 조종사 탐색구조연합훈련

- 실전과 동일한 절차로 신속·정확한 탐색구조작전 수행
- 2008년 9월 30일부터 평시 조종사 탐색구조 임무 전담

자료제공: 공군본부 공보과 원고정의 편집실

**6탐**색구조비행전대는 4월 2일, 조난 상황을 가정한 조종사 탐색구조훈련을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지를 가정한 강원도 태백산간 지역으로 비상탈출한 조종사를 구조하는 훈련으로 6전대 HH-60 구조헬기, 美 공군 A-10 공격기 등이 투입되어 실전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美 공군 A-10 공격기가 적 대공전력을 무력화시키고 나면 6전대 HH-60 구조헬기와 항공구조사가 투입되어 조난 조종사를 신속하게 구조하여 적지에서 탈출하였다.

한·미 공군은 10대 군사임무전환에 따라 2008년 9월 30일 이후 평시 美 공군 조종사에 대한 탐색구조임무를 6전대에

서 담당함에 따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美 조종사 생존훈련과 연계하여 실전과 동일한 절차를 가지고 탐색구조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과 2006년 군산 앞바다에 추락한 美 F-16 전투기의 조난 조종사를 6전대 탐색구조전력이 무사히 구조한 전례가 있어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美 공군은 6전대의 탐색구조능력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군은 실전적인 탐색구조훈련 통해 임무절차를 더욱 보완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탐색구조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조난 조종사를 구출하라

# 2009 키 리졸브 · 독수리훈련 참가 미 증원군, 대구공항 통해 출국

## -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 대형 민항기 화물 적하역 능력 갖춰

글 · 사진 군수사 정훈공보실

**한**반도 우발상황 발생시, 대규모의 미군 병력이 한미동맹에 따라 신속하게 우리나라로 전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반도의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난달 19일 종료된 2009 키 리졸브(Key Resolve) · 독수리훈련에서는 대규모의 미군 증원병력을 신속히 한반도로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군내 · 외 주목을 받았다.

유사시 대규모 병력을 신속하게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고 수송능력도 탁월한 수송 수단이 필수적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항공기 가운데 대형 여객기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보잉 747, 일명 점보제트기가 미 증원군의 신속한 수송을 책임질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보잉 747은 탑승 인원만 400명이 넘고, 110여 톤의 화물을 싣고 1만km의 거리를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여객기다. 군용 항공기의 탑승인원 규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민간 점보제트기가 이번 2009 키 리졸브(Key Resolve) · 독수리훈련의 대미를 장식하며, 한국으로 전개되었던 미 증원군을 싣고 7일 대구공항을 떠났다. 이로써 지난 3월 2일부터 미 본토 헨터 기지(조지아 주)와 로턴 기지(오클라호마 주), 일본 가테나 기지(오키나와)를 떠나 대구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던 700여 명의 미군들은 입국에서부터 훈련 참가, 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실제와 동일하게 연습한 후 이날 본토로의 귀환을 마쳤다.

이번 훈련 기간 중 대구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대형 보잉 747 점보여객기가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가 그동안 구축해 놓은 화물 적하역 시스템 덕택이다.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화물적재 장비 '35K 카고로더'가 미 증원병력의 화물 적하역 작업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35K 카고로더는 영국에서 제작된 화물 적하역 장비로서, 16톤의 화물을 지상에서 5.6m 높이의 민간항공기 화물실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 군용 항공기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에도 장비를 적하역할 수 있어 이번 훈련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공군은 다수의 카고로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 항공기에 접안하여 화물을 싣고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군용 · 항공기를 가리지 않고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천후 능력을 갖추게 됐다.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장 이명길 대령은 "이번 훈련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미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연합 항공수송 업무를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훈련이다"고 말하고, "과거 부산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개되었던 미 증원군이 대구 기지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얻게 되는 전술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는 7일 출국하는 미군들을 위한 통관 · 출입국 신고 · 검역 등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절차를 지원하고 2대의 카고로더(화물적재장비)와 다수의 지게차를 지원하여 복귀하는 미군들의 편의를 도왔다. ㉞



2009 키 리졸브 · 독수리훈련을 마친 미 증원병력이 7일 대구공항에서 보잉 747 점보여객기를 타고 최종 출국했다.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는 군용 장비를 이용하여 민간항공기 화물 적하역을 지원하는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 Hot SKETCH



◎ 장군 진급식

참모총장은 4월 1일, 공군 화관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이광수, 정경두, 우정규, 이용곤 대령의 진급 신고를 받고, 다과를 함께하며 진급한 장군들에게 축하와 함께 묵묵히 내조한 가족들에게도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휘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병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변화를 추구하는名将이 되어 국가 안보와 공군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203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

참모총장은 3월 31일, 군 관계자와 내빈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제203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 교육수로 및 임관식」을 주관, 신임 부사관의 임관 축하와 무운 장구를 기원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 부사관의 일원이 된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했다"며, "신임하사 여러분은 확고한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견지하고, 미래 첨단과학군이 요구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부대의 화합과 단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임관한 291명 중에는 여부사관 54명을 포함하여 조종사였던 할아버지와 현 공군 대령인 아버지에 이어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정소진 하사, 육군 대위 전역 후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이종환 중사, 군에 입대하기 위해 9년간의 외국 생활을 접고 입대한 김장현 하사 등이 눈길을 끌었으며, ▲ 이은준(항공관제) 하사가 참모총장상을 ▲ 서동권(항공통제) 하사가 교육사령관상을 ▲ 안재석(정보) 하사가 기본군사훈련단장상을 ▲ 김종민(중거리유도무기전자정비) 하사가 인터넷전우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 대비태세 현장 지도

참모총장은 3월 27일, 대비태세 현장 지도를 위해 35전대(257세대)를 순시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 수행을 위해 헌신전력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한 후 "최근의 안보 상황이 예측할 수 없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 AIR FORCE NEWS

## 공군은 지금

2009 May



◎ 우주인 이소연 박사 작전사령부 방문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4월 15일 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작전사령관과 환담을 나누고, 독수리회관 칠성홀에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의 우주를 향한 도전"이란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 제18전비, 4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

4월 14일, 제18전투비행단에서는 제112전투비행대대 4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이 있었다.



◎ 제5전비, 부대정비대대 주기검사 출고 1,500회 기념행사

제5전술공수비행단의 부대정비대대가 10일, 공군 공중기동기 분야에서 처음으로 항공기 주기검사 1,500회 대기록을 수립했다. 이번 기록은 1988년 1월, C-130 항공기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 그해 3월 첫 주기검사 출고를 시작한 이래 20년 만에 이룩한 역사적인 기록이다. 부대가 달성한 이번 1,500회의 기록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137,771시간에 달한다. 특히 이번 기록은 각종 공중기동 훈련을 비롯한 정기, 부정기공수, VIP 임무는 물론, 이라크 파병, 사관생도 공수, RODEO(세계 주요국가 수송기 종합 전시기량경연대회), RED FLAG 훈련 등 특수 임무 및 해외 임무 항공기 주기검사를 포함하는 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 교육사, 실전적 교육을 통한 급소폭발물 처리능력 배양

4월 14일, 교육사령부에서 실시된 급소폭발물 처리 집체교육에서 실무 부대 부대훈련교관들은 폭발물처리에 사용되는 방탄복을 직접 착용해 보고, 전화기/세숫비누갑/각종 포장용 박스 등에 설치된 다양한 형태의 급소폭발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급 부대별 위협요소 및 향후 전쟁양상에 따른 급소폭발물 운영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급소폭발물 위협의 심각성과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AIR FORCE NEWS

## 공군은 지금



◎ 제11전비, 태권도대회 참가 장병 격려  
제11전투비행단 비행단장은 4월 6일, 제16회 공군참모총장배 태권도 대회 참가 장병을 격려하고, 부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39전술정찰비행전대, 지휘관 일일정비 체험  
39전술정찰비행전대 전대장은 4월 2일, 공군 재조형 확산의 일환으로 항공기 정비 현장을 찾아 정비작업을 직접 체험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정비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8전비, 국방대 외국인 수탁생 방문  
4월 6일, 국방대학교 외국인 수탁생들이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하였다. 이날 부대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수마디 대령 외 25명은 부단장 및 감찰실장의 영접으로 대회의실에서 부대현황 브리핑을 받고, 단본부 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 제30방공관제단, '1,000미터 고지에서 먹는 행복 자장면'  
4월 13일, 제30방공관제단 예하 8196부대에서는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뉴 '자장면'을 점심으로 제공한 것이다. 해발 1,000미터가 넘는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8196부대 장병들에게는 그야말로 특별 메뉴다.

부대는 이날 인근 지역 중화요리사를 직접 초빙해 즉석에서 만든 자장면을 제공하고, 급양 병들에게는 꿀맛 같은 특별 외출을 제공했다. 저녁식사는 부사관단이 맡아 장병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입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등병의 부모님들이 특별 게스트로 참가해, 아들이 2년간 생활할 부대의 이모저모를 둘러보며 막연한 근심·걱정을 떨쳐버렸다.



◎ 제15혼비, 지원대, 군경 요리경연대회 수상  
제15혼성비행단에 소속된 장병 및 군무원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원대 장병들이 4월 9일, 서울 양재 아트센터에서 열린 '군경 요리경연대회(대회명 :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2009)'에서 규정요리부문과 창작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각 군 부대를 대표하는 요리사들이 총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지원대 장병들은 각종 재료와 간병을 갈아 이용한 에피타이저, 메인요리, 디저트를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버라이어티한 요리로 평가받았다.

# 2009 May



### ◎ 제17전비, 군·관 합동 화재 진압훈련 실시

4월 1일, 제17전투비행단에서는 군·관 합동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청주기지과 지역

소방서의 소방 공조체계를 숙달하고 기지내 대형 유류 저장지역 화재 발생시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주기지 소방 차량 4대와 지역 소방대 차량 3대가 동원돼 실제감 있게 펼쳐졌다.



### ◎ 제3훈비, '09년 도 체력검정

제3훈련비행단은 간부들의 전투체력증진을 위한 '09년도 체력검정을 실시하였다. 매년 실시되는 체력검정은 간부(장군~하사

이상, 군우원)를 대상으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5km달리기 등 3종목을 각자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기준에 의거 엄격히 실시하였다.



### ◎ 복지단,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복지근무지원단은 최근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군기 위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임원사 주관으로 부사관 및 병사를 대상으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우리의 현실/사고사례/성군기 위반사고 예방교육 등이었다.



### ◎ 제16전비, 「제64회 식목일 기념행사」

4월 9일, 제16전투비행단은 제64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부대 조성을 위해 병영내 숲 가꾸기 및 기지내 식목행사를 실시하였다. 제64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반송 1주를 기념식수하였으며, 비행단 야산 지역에 묘목을 나누어 심고, 부내 내 고사 나무 제거 및 추가 식재를 통해 보완작업을 하였다.



### ◎ 제20전비,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

제20전투비행단 화생방 지원대는 4월 7일, '09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모의훈련에 참가하였다. 이번 훈련은 화학 작용제 및 유독가스 테러 발생에 따른 민/관/군 작전 절차를 숙달한 것이다.

# 아버지 나무



- 아버지, 세상 끝에 서다 -

≡ 시인 김두녀 | 창공클럽 회원

지난 현충일에는 남편을 따라 충북에 있는 월악산 영봉에 오르게 되었다. 몇 발짝 옮길 때마다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밤비에 목욕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 우뚝우뚝 서서 우릴 반겼다. 일제 강점기에도 용케 살아남아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조선소나무를 붙잡고 안아 보다가, 하늘 끝까지 거침없이 뻗은 가지를 쳐다보았다. 적송(赤松)을 만나는 기쁨은 내게 힘들게 산에 오르는 보람이고 이유다.

높은 산을 오르며 자연 그대로의 멋진 노송(老松)을 만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내 아버지를 닮은 노송(老松)은 내가 사모하는 나무라고 해야 옳다. 몇 해 전 고창 선운사에서 도솔암 가는 길에 상사화로 붉게 물든 숲길을 걷다가 큰 소나무 한 그루를 만났다. 이 고장의 옛 이름 장사현을 본 따 장사송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600년이나 된 반송으로 높이 23미터, 가슴높이의 둘레가 2.95미터나 된다고 한다. 진흥굴 앞에 있다하여 진흥송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를 보고 입이 짝 벌어지는 순간 아버지를 떠올렸다.

수백 년을 먹구름 쓸어내며  
푸른 하늘 떠받고  
양떼구름 몰아가던 바람  
바람의 모습으로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움으로 빨갛게 타들던  
촉수 선 꽃무릇 꽃밭에서  
함께 울고  
한겨울  
시린 발등으로  
초록 잎새 얼려주는 큰 사랑입니다

치닫는 질풍노도(疾風怒濤) 앞에서도  
가지하나 꺾이지 않은  
하늘 치솟는 기개  
정갈한 푸르름 그 의연함에  
저절로 고개 숙입니다

아, 장사송!  
여든 일곱 그루터기로  
꽃꽂이하게 앉아 목청 가다듬던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우뚝 선  
저 높은 가지  
큰 떨림 속에서  
당신의 목울대를 봅니다

- '장사송' 전문 -

호탕한 웃음소리를 지닌 내 아버지는 키가 크고 우람한 체격에 미남이었다. 게다가 긴 수염이 잘 어울려 위엄까지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평소에 한복을 고집하셔서 어머니께서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다. 어머니가 곱게 지어 놓은 한복 두루마기를 차려 입고, 중절모자에 단장을 들고 외출을 하실 때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마음처럼 신작로도 환해졌다.

부지런한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풍류를 아시는 분이셨다. 머슴이 있었지만 소를 식구처럼 거두며 이른 봄부터 손수 쟁기질을 하시고 쉬실 때는 물론 아침저녁으로 시조창을 즐기셨다. 아버지 생신날에는 마당에 채양을 쳐놓고 소리꾼을 불러 이웃 마을 친구들까지 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이웃과 밥 한 끼 나누어 먹는 셈 친다고 하셨지만 음식을 준비하시는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 나르며 밤잠을 설치는 등 여간 고단한 게 아니었다. 내가 결혼을 한 뒤에는 이웃에 사는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아침 식사를 하는 정도였지만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교통마저 불편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다. 식구끼리 오붓하게 지내는 생신날은 언제 오나며 푸념도 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의 시조 읊는 소리에 잠이 들고 아침에도 그 소리에 눈을 뜰 때가 많았다. 큰언니한테 들은 얘기다. 한때 집에 말(馬)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벼논을 돌보면서도 의관을 차리고 고을을 순찰하듯 승마를 즐기셨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여유와 멋스러움에 부러운 눈길을 보냈다고 한다. 내가 너무 어렸을 때라 생각은 안나지만 말탄 아버지의 모습은 영화에서나 봄직한 선비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또 교육열이 높아서 오빠가 다섯 살 되던 해부터 사랑방에 서당선생님을 모셔놓고 한문공부를 가르쳤다고 한다. 어렸을 때 일이지만 사촌 오빠들과 언니들까지 '하늘 천 따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천자문을 외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고, 그때 긴 머리를 빗어 올리며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쓰시던 훈장선생님의 특이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아버지는 평소에 엄격하셔서 우린 행동을 조심해야 했다. 온 식구가 모여 밥을 먹을 때는 덕담을 꼭 하셨는데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가르쳤고, 넘치는 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을 늘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많은 자식들을 먹이랴, 공부 시키랴, 풍족하게 못 해줌을 달래느라 그랬으리라. 그리고 딸들에게는 정조관념(貞操觀念)을 유난히 강조하셨다. 여자가 정조를 지키는 일은 목숨을 지키는 일과 같다고 하셨는데 딸이 많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걱정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사랑이 참 많으셨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셔서 집 안팎을 둘러보시며 큰기침으로 머슴을 깨우고, 마루 끝에서 넘실거리던 모란꽃 사기요강을 비우셨다. 어머니는 채마밭으로 푸성귀를 찾아 나서고, 시키지 않아도 둘째언니는 아궁이에서 재를 담아내며 아침밥 짓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버지는 이부자리까지 정돈하신 뒤 방비를 들고 방을 쓰실 때, 나는 다가가 "제가 할게요"하며 방비를 뺏어들었다.

아버지와와 가장 오래된 기억이 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무릎을 세워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낮잠을 주무실 때, 나는 아버지 다리 사이를 들락거리며 놀았다. 배를 올라타는 등 껍귀찮게 했을텐데 "너 이놈!"하고 야단을 친 적은 없다. 어디 그 뿐인가? 아버지는 북두칠성이 정지문 위로 바로 서고, 음력 칠월 보름이 지나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동네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아 놓고서 멀찌감치 앉아 껍껍 껍 웃으며 좋아하셨다. 어쩔 동화 같은 얘기지만 아버지의 등을 타고 병원에 다녀왔던 추억의 시 한 편이 있다.



아버지, 배가 아파요

햇볕이 따스하던 아침나절 언니를 따라  
동네 우물가에 갔지요  
언니는 빨래를 하고 저는  
우물가를 맴돌다가 빙빙 돌다가 그만  
배가 아파 뒹굴었지요  
양지쪽 반들반들한 시멘트바닥 위를  
데굴데굴 굴렀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아버지는 저를 업고 십리 밖 병원길에 나섰지요  
아버지의 등에 오른 저는  
동구 밖을 지나자마자 다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가끔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등은 참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너무 높아서  
저는 가족나무에 걸린 꼬리연처럼  
둥둥 떠갔습니다

요즘도 저는  
아버지의 등을 타고  
십리길 보생의원에 가서  
큰 주사 한 대를 맞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등이 그리워서

아버지, 배가 아파요

- '아버지의 등' 전문 -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께서 손수 지어 주신 연분홍색 울동치마저고리를 차려 입고, 아버지가 사 주신 흰 구두에 말 두 마리가 그려진 책가방을 등에 메고 아버지를 따라 학교에 갔다. 그렇게 고대했던 학교에 들어가다니 통학거리가 십리 가까이 되었지만 가슴은 풍선처럼 부풀고 발걸음도 내내 가벼웠다.

서연화라고 하는 여자선생님이 첫 담임을 했는데 화장을 곱게 한 선생님은 키가 작고 예뻐다.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있어서 1학년 1학기 종강 때 통지표를 받아두고 운 적이 있었다. 아픈 기억을 이제야 털어 놓지만 다른 과목은 다 [수]를 맞았는데 음악과 미술은 [미]를 맞은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나중에 사생대회, 백일장, 콩쿠르대회, 웅변대회 등 군(郡)대회는 모두 내가 나갔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기대 반 우려 반 하시는 말씀은 “너는 재주가 너무 많아야.”였다.

자랑을 하자면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전북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전국웅변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타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린 적이 있었다. 내가 글을 쓰면서 이런 경력이 무슨 소용 있으랴만 지난 날,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버지는 비교적 장수하신 편이지만 일흔 셋을 넘기면서 돌아가실 준비를 하셨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 연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일흔 셋 이후에 사는 세월은 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잘못된 자식 없이 산 것을 늘 마음속으로 고마워하셨다. 그래서인지 앓고 계시면서도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항상 나는 괜찮다고 하셨다.

폐암으로 돌아가시던 해, 병원신세 안지고 집에서 돌아가신다고 고통을 참고 계셨는데, 결국 앓은 허리로 전이돼 그 모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주는 주사 몇 대가 멀쩡하던 정신을 흐릿하게 한다.’며 급속히 쇠진해 갔다.

나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한 달 반 동안, 매주 집과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와 함께 밤을 새웠다. 병원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던 날도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침에 정신을 가다듬더니 논바닥처럼 갈라진 혀로 “물 좀 다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끝으로 퇴원을 한 후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손주들을 포함해서 모두 25명이었다.

어둠은 선명하게 링거병에서 푹푹 떨어지며 투명한 관을 타고 당신의 혈관 속 스며들었다. 때가 돼 가는 거라고 한사



코 병원을 마다하시던 아버지 여든 일곱 병환 중에도 채통을 잃지 않으시더니 주사바늘을 꽂자마자 정신은 혼미해지고 기운은 땅속 꺼져들었다.

일흔 셋을 넘기면서 복이 많은 노인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던 당신 서서히 커지던 암덩어리는 당신의 허리까지 잠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좁은 침상에서의 한 달 반 동안 몸과 마음 다 비우고 퇴원하시던 날 아침 타들어 가던 입 논바닥처럼 갈라진 허끝으로 '애야, 물 좀 나오' 그 마지막 말씀

그날 창문 밖에는 하얀 눈이 쌓여 먼 산에서 병실로 뻗어오르던 찬 기운은 뺏속 시린 슬픔이었습니다

탈대로 다 타들어 가시던 당신 지켜보던 모습 자식 차마 볼 수 없어 하느님 제발 어서 아버님을... 속으로 하던 기도가 입 밖으로 터져났습니다 영영 이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

신고 가시라고 문밖에 내놓은 구두, 종절모자, 단장은 잘 챙기셨는지요 저희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터에 속으로 울었습니다 크게 울면 당신께서 이승을 편히 못 떠나신다고 큰언니가 울지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한복을 고집하시던 당신 당신의 수려한 외모는 외출을 하실 때 가시는 길마다 불을 밝힌 듯 환했습니다 그런 당신께서 돌아가신 후 병풍 뒤 좁은 칠성판에 반듯이 그렇게 누워 계시다니요 하느님께 우리 아버지 어서 데려가 달라고 통성기도 한 죄 용서 해 주시라고 차디 찬 팔과 손을 만지며 흐느낄 때



당신께서는 금방이라도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뜰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 끝에 서서 한 손엔 단장 들고 마포자락 휘날리며 쓸쓸한 길 홀로 가시다가 뒤돌아서서 남겨둔 자식들 하나 둘 눈여겨보시고 '잘들 있거라, 난 괜찮다.'고 꺾꺾 웃으시며 평생 사시던 집과 동네 한 바퀴 둘러보시고 그렇게 먼 길 떠나신 당신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세상 끝이라도 달려가서 뵈고 싶습니다. 아버지!

- '아버지, 세상 끝에 서다' 전문 -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길 싫어했다. 아파도 좀처럼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남은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큰아들인 오라버니를 더 챙기시더니 기일이 되면 형제들은 큰집에 모여 형제애를 다지고 있다. 제사음식을 함께 마련하고 정성을 다하는, 아버지를 꼭 닮은 오라버니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으면, 그리움도 잠시 잊은 채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빠져들다.

어느 산에서 왔을까? 창밖에는 13년을 한결같이 가지치기로 말쑥해진 채 내 집을 내려다보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하지만 여기에 얼비치는 고창 선운사 장사송의 위용에 울컥, 아버지가 그림다. ㉠



# 공군에이스 4라운드

## - 가상 시나리오 -

☞ 대위 유선의 | 방포사 정훈공보실

### 막장 시나리오, 나도 쓴다

최근 막장 드라마들이 화제다. 보지 않으면 궁금해서 손발이 오그라들고, 보면 민망해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막장 드라마들. 허술한 구성에 발연기까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중독성 때문에 욱하면서 결국에는 보고만 다는 이런 막장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속 시원한 복수, 희망 없이 살던 삶에 저절로 굴러들어온 역전의 기회(알고보니 내가 재벌집 첩의 자식이었다는 등), 인파가 가득한 명동 거리에서 하루 종일 헤매야 하나 볼까 말까한 꽃미남, 꽃미녀들이 때로 나오는 러브스토리까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대중들의 억눌린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싶다.

솔직히, 위너스 리그가 끝나고 개인리그에 진출한 선수도 없고 해서 쓸 경기도 없던 차에 그동안 틈날 때 상상해 보았던 공군에이스 4라운드 가상 시나리오를 정말 '막장'으로 한 번 써볼까 한다. 생각처럼만 된다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지만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하지만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일들이다.



### 오영종 vs. 이제동(신한은행 스타리그 4라운드 공군 vs. 화승 에이스 결정전)

4라운드 첫 경기 공군 vs. 화승에서 사신 오영종이 에이스 결정전에서 바투 스타리그 우승자 이제동을 꺾고 공군에 첫 승을 선사했다. 완전히 유리했던 경기를 옛정 때문인지 길게 끌다가 역전을 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역시나 예의 '질러공장장' 포스를 발휘하며 화끈하게 경기를 매듭지었다.

신협 배틀로열에서 벌어진 둘의 일전은 동명의 영화 배틀로열을 보는 듯 처음부터 처절했다. 초반 장벽 안에서 이제동과 오영종은 서로 엿박자로 병력을 진출시켜 상대방의 본진을 노렸지만 오영종의 수비가 한수 위였다. 2기의 질러공과 일꾼만으로 이제동의 저글링 한 부대를 큰 피해 없이 막아내며 승리를 잡았다. 반면 오영종은 난입시킨 질러공 4기로 일꾼을 7기 이상 잡으며 자원적인 우세 속에 경기를 이끌어갔다.



이후 전략은 커세어+다크, 교육지책으로 어시밀레이터 입구를 막고 재기를 노리는 이제동의 수를 꺾은 오영종은 드라군 생산을 중단하고 커세어를 모으는 동시에 다크템플러 생산체제를 갖추었다. 이제동의 거센 본진 방어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1시 지역과 11시 지역의 동시 몰래멀티를 한꺼번에 제압하며 유리한 위치를 이어갔다. 이때 이제동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히드라로 폭탄 드랍을 성공시켜 오영종의 게이트웨이를 대부분 파괴시키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1시와 11시의 병력을 집결시켜 이제동의 본진에 난입한 오영종의 병력들은 압도적이었다. 결국 항복을 선언한 이제동.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으로 만났지만 두 선수의 화끈한 경기는 이날 열린 4라운드 경기 중 최고의 명경기로 손꼽혔다.

**박정석 vs. 이영호(신한은행 스타리그 4라운드 공군 vs. KTF 1경기)**

4라운드 첫 경기에서 아쉽게도 최초의 프로리그 100승 달성에 실패한 박정석은 팀 동료였던 '최종병기' 이영호를 상대로 100승에 성공하며 기쁨을 더했다. 바투 스타리그에서 16강의 벽을 넘지 못하며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종족을 상대로 경이로운 승률을 기록하며 정명훈보다 한수 위로 평가받는 최고의 테란 이영호를 상대로 '무당스톱'을 작렬시키며 거둔 이날 승리는 4라운드 최고의 역전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맵 '신의 정원'에서 벌어진 이날 경기에서 이영호는 로템과 비슷한 언덕지형을 활용해 초반부터 적극적인 견제를 시작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이영호의 견제에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랜 경력의 소유자인 만큼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서 꼭 참고 한방 병력을 모은 박정석. 하지만 곳곳의 요소에 배치된 이영호의 병력들에 가로막혀 쉽게 진출할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안그래도 피해를 입은 앞마당 자원이 반쯤 소비되었을 때, 진출과 제2의 멀티를 두고 고민하던 박정석은 함정을 선택한다. 이영호의 별처가 한 두기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실수인 척 길을 열어두고, 뒷마당을 가져가는 척한다. 그러면서 이영호의 병력이 들어오면 주력 병력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함정을 파둔 박정석.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경험이 부족했던 이영호는 여기에 걸려들고 박정석의 뒷마당 깊숙한 곳까지 신나게 침입한 이영호의 병력들은 작렬하는 박정석의 무당스툼에 한줌 재로 사라지고 만다. 이후 주력병력의 무사한 진출에 성공한 박정석. 이미 한방 병력을 잃은 이영호는 지형을 이용해 끝까지 버텨보지만 이마저도 신들린 셔틀+질럿에 무너지며 경기를 포기하게 된다. 최초의 프로리그 100승 달성! 박정석은 최고라는 이영호를 꺾고 100승을 달성하면서 영웅의 부활을 알렸다.

### 홍진호 vs. 신상문(신한은행 스타리그 4라운드 공군 vs. 온게임넷 4경기)

경기력이 군입대 전보다 급격히 상승했다는 주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방송경기에서 공군에서의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던 홍진호가 드디어 첫 승을 신고했다. 그것도 프로리그를 호령하는 '미라클' 신상문을 상대로 거둔 승리라 그 의미가 더 컸다. 2:1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맵 '단장의 능선'에서 만난 두 선수는 흰히 뚫린 앞의 공격루트를 버리고 중립건물로 막혀있는 뒷길을 집요하게 노렸다.



능선쪽의 요지를 장악하며 홍진호의 진출을 막은 신상문은 경기 중반까지 자신 스스로도 유리함을 느낀 듯 여유있는 표정이었지만, 가난하게 쥐어짜는 경기의 달인인 홍진호를 과소평가했다. 본진 앞쪽에 탱크와 미사일 터렛으로 난입을 원천봉쇄했지만 뒷길로 실어나른 홍진호의 히드라들은 부지런히 신상문의 뒷길을 뚫었고, 뒤늦게서야 이를 알아챈 신상문은 거꾸로 역러시를 선택했으나 성큰과 다수의 러커로 입구를 철저히 막아놓은 홍진호의 본진 난입에 실패했다.

병력은 있지만 갈곳이 없었던 신상문. 결국 홍진호처럼 뒷길을 뚫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이미 자신의 본진에 난입해 있는 홍진호의 병력보다 늦게 들어가 패배를 인정하고 말았다. 앞마당에 탱크로 타격이 가능한 언덕이 있고, 상대방이 반드시 이를 이용할 것임을 직감한 홍진호가 스탑러커로 앞마당 언덕에서 드랍쉽 두 대 분량의 병력을 모두 잡아낸 장면이 압권이었다. 오늘 경기를 계기로 예전의 폭풍이 다시 휘몰아치길 기대해본다.

### 쓰고 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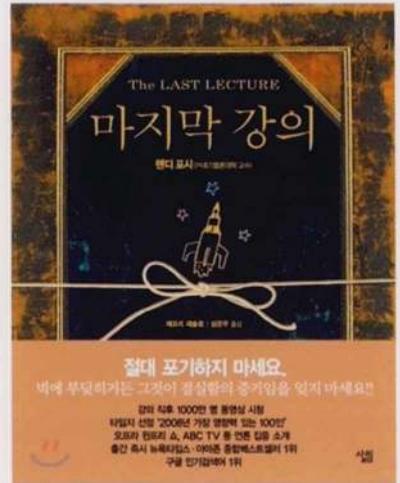
정말로 터무니없이 승리하는 막장경기들을 쓰고 싶었지만, 쓰고 보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경기들을 쓴 것 같아 민망하다. 이 말은 결국 언제든지 공군에이스가 상대팀의 에이스,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선수들을 이겨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공군에이스보다 개인리그 우승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팀은 없었다. 그들이 우승할 당시의 기량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어떤 팀도 공군에이스 앞에서 자신있게 승리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막장을 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장의 '베이스'가 안 나오는 팀이 바로 공군에이스다. 오히려 공군에이스가 속절없이 패했던 최근의 경기들이 농담같은 '막장'인 것이다. 프로리그 4라운드가 '막장'을 벗어나 공군에이스가 빛나는 제대로 된 한 편의 드라마가 되길 기대해 본다. 

# 마지막 강의

- 랜디 포시 지음 -

▣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논어 태백편에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는 말씀이 나온다. 죽음에 직면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본질이나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무지몽매하다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다.

불과 수년 전만해도 나는 나의 죽음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주변 또래들의 돌연사 소식을 들으면서 나도 이러한 죽음의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아마 이것은 4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중년들의 보편적 정서가 아닐까 싶다. 우연히 정기신검을 받다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급속히 전파되고, 휴가를 잡아서까지 내시경 검사를 받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보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중년 남성들의 인식이 ‘바람 앞에 등불’ 처럼 애처로운 상태로 보인다. 물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정해 보지만 어디 병이라는 것이 이러한 노력만으로 확실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카네기멜론에서 컴퓨터 공학 교수로 재직하다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랜디 포시가 죽음을 앞두고 행한 ‘마지막 강의’를 모은 것이다. 61개의 챕터로 나누어진 그의 메시지들은 죽음을 오래된 친구를 맞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넘쳐난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 슬픔과 쓸쓸함이 녹아있고 자신이 꿈꾸던 많은 일들에 대한 미련도 엿보인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나는 살아있으며 마지막까지 추억을 만들고 꿈을 꾸며 이 순간을 깊이 즐기겠다’는 삶의 자세가 투영된 그의 문장들은 독자들에게 슬픔보다는 흐뭇한 감동과 위로를 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감사할수록 삶은 위대해 집니다.”, “준비하세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온답니다.”, “매일같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이 말들은 그가 자신의 간에 10개의 종양이 퍼져 수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후 제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조언들의 일부다. 임박한 죽음이 공포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었을 터임에도 그는 그 죽음을 도구로 현재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자신이 죽을 때를 모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달콤한 축복 때문에 인간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엄청난 활력 속에 에너지틱한 역사를 구동시키지 않는가? 하지만 자신의 죽을 때를 미리 아는 것 역시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 온 죽음과 조우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뻣속 편한 파이널 어프로치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랜디 포시처럼 자신이 다음해 생일까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 그 시간에 지나간 삶을 정리하고 남겨진 이들에게 선물을 마련해 주듯 살아서 얻고 배운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분명 이것이 더 멋진 마무리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축복 받은 탄생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죽음은 자신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

# 봄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알락할미새



봄에 일찍 도착하여 짝을 기다리고 있는 할미새

**모** 르긴 해도 시골에서 생활해 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알락할미새를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아 니, 할미새라는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참새나 까치처럼 눈만 뜨면 만날 수 있는 텃 새도 아니고, 이른 봄에 동남아 지방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와 번식을 하고 늦가을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가는 여름철새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거나 남달리 새를 좋아하는 조류마니아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새가 바로 할미새이기 때문이다.

참새목 할미새과에 딸린 알락할미새는 한국, 몽고 남부, 중국, 대만 등 폭넓게 분포하여 번식을 하는 종이며 우리나라에는 3월 초 얼음이 녹는 시기에 도착을 하여 대부분 3월 말이면 대부분의 할미새가 중부지방까지 도착을 한다. 아주 작고 가냘픈 날개를 가지고 넓은 바다와 높은 산을 넘어 도착한 할미새들은 분주하게 허기졌던 배를 채우고 바로 번식을 위한 준비를 한다. 비교적 사람들을 겁내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부들이 밭을 갈거나 논일을 할 때 사람들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서 먹이를 찾아 먹는다. 농가 근처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반면 알락할미새는 사람들은 물론 차량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활주로상에서 항공기에 충돌할 위험이 다른 어느 조류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 겨울이 되어도 남아 있는 새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속담대로 곤충류와 작은 벌레들을 즐겨 먹는 할미새도 물이 얼지 않은 양지바른 물가를 만나면 외면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맛있는 먹이를 잡아먹다가 동료들에 비해 몇 달간 늦게 남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새들은 겨울이 되어도 남쪽으로 떠나지 않고 아예 수로 주변에서 겨울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여름철새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

아마 먼 곳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에 위험도 많고 바다를 건너다가 힘이 없으면 빠질 수도 있는데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날씨도 그다지 춥지 않아서 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면 이곳에 있는 동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탓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서 뚱뚱해진 몸으로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할까봐 일까?

물론 두 가지 모두 정답이 아니다. 이곳에는 겨울이 되어도 대표적인 여름철새인 왜가리와 백로, 그리고 해오라기들이 다수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대형조류인 왜가리 무리 틈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할미새도 간혹 만날 수 있다.

이곳 천수만 지역에서 조류를 연구해온 조류학자들과 그 답을 찾아냈다. 여름철새가 겨울에도 이곳에 있는 이유와 겨울철새인 기러기나 오리들이 여름에도 이곳에 남아 있는 이유도 함께…….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하였다. 이곳에 남아 있는 철새들은 다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의 여름철새들이 원래 추운 겨울에 이곳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쪽 지방에서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 가다가 머무르던 새들인데 그 새들 입장에서는 이곳이 그런대로 서식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겨울에도 남아 있는 것이었다.

겨울철새가 남아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기러기나 오리들은 가족 중 한 마리가 다치거나 기력이 없어지면 이곳에 혼자 놔두고 시베리아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가족을 돌보기 위해 남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 등 서식조건 변화로 이곳에서 번식도 하며 텃새화되어 사계절 이곳에서 생활하는 개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알락할미새의 퇴치

봄이 되면서 가장 먼저 활주로를 확보하는 새가 바로 이 새이다.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살펴보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퇴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퇴치하기도 쉽고 항공기 소리만 들려도 기지 밖으로 날아 갈 법도 한데 이 새는 그렇지 않으니 활주로 위에서 TAXIING하는 항공기에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새가 활주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과 활주로 주변에서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활주로 사이에 있는 배수로의 물이 잘 흐르도록 하여 새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할미새는 배수로에서 서식하는 작은 실지렁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물위에 있는 작은 거미들을 잡아먹기도 하며 그 주변에서 서식하는 곤충류를 즐겨 먹는다. 물론 활주로 주변의 잔디 면에 작은 벌레들이



할미새가 활주로 주변 잔디에서 거미를 잡고 있는 장면



할미새가 활주로 위에 올라와 순찰차 가까이 다가 오고 있다.



할미새가 활주로 위에서 기어다니는 거미를 잡고 있다.



습기가 많은 수로 근처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습기가 많은 수로 근처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할미새가 도로 위까지 올라와서 날아가지 않고 뻥히 쳐다보고 있다.



얕은 물에서 실지렁이를 잡아 먹고 있는 할미새



인도 근처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할미새



활주로와 유도로 위에 나와있는 할미새를 신속하게 퇴치하고 있는 BAT 요원들

있으면 잔디밭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먹이를 잡기도 한다. 특히, 이른 봄에는 활주로 주변의 잔디위에 거미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주로 이런 거미들이 할미새들의 주된 먹이가 된다.

활주로 주변의 잔디 면에 적절한 살충제의 살포로 곤충류가 모이지 않도록 하고 배수로의 물이 잘 흐르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 수서곤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구조물의 틈새는 이 새가 번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대부분 경사진 곳의 돌 틈이나 건물의 틈새를 번식장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새가 활주로 내에 서식하지 않도록 하려면 주기적인 살충제 살포와 배수로의 정리, 그리고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구조물에 동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틈새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새들이 활동하고 있다. 여름에만 활

동하던 할미새들도 지금은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서식하는 개체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새들이 도래하는 시기도 빨라졌다. 새들의 활동을 수시로 파악하여 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류퇴치계획을 수립하되 탄력적인 운용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기 조류충돌방지에 관한 대책도 이제는 다채로워져야 한다.

길을 걷다가 알락할미새 한 마리를 만났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뻥히 쳐다본다. 내가 발을 옮길 때마다 새도 조금씩 움직이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다. “우리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나요?” 라고...<sup>①</sup>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도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운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한창이다.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언제나 나를 최고라고 말해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정준하, 김원준의 뮤지컬 <라디오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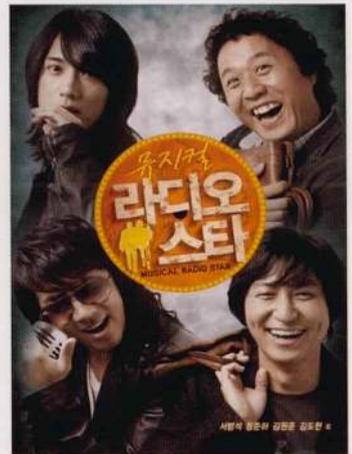
영화 <라디오 스타>를 봤다고 뮤지컬 <라디오 스타>도 어느 정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은 버리고 시작하자. 정준하, 김원준이 나오는 뮤지컬 <라디오 스타>는 영화의 감동에 무대와 조명, 노래를 더했다. 살아있는 ‘무비컬’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뮤지컬 <라디오 스타>는 '88년도 가수왕까지 올랐지만 이제는 마약 흡연 전과자 정도로 취급 받는, 잊혀진 스타 최곤과 그의 매니저 민수의 영월 라디오 진행기이다. 90년대 초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김원준은 자신이 연기하는 최곤에 대해 “마치 내 얘기 같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원준이 부르는 ‘비와 당신’은 좌중을 압도한다. 여기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준하의 가창력이 이 뮤지컬을 더욱 빛나게 한다. 공연장에서만큼은 무한도전에서의 정준하는 잠시 잊자. 그는 단지 최고의 매니저를 잘 연기하고 싶은 노력과 배우일 뿐이다. 그러나 관객들의 기립박수로 커튼콜을 볼 수 있다면, 이 때만큼은 무한도전표 정준하를 기대해도 좋다. 특히 동강과 별 등 영월의 매력을 잘 담아낸 무대디자인과 감칠맛 나는 강원도 사투리는 마치 영월로 뮤지컬 투어를 떠난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화창한 5월, 어디론가 떠나고도 싶고 뮤지컬도 보고 싶은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지방 공연을 놓치지 말자.

지방투어 : 울산(5월 9일~1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구미(5월 16일~17일, 구미문화예술회관), 제주(5월 23일~24일, 제주문화예술회관), 대전(6월 20일~21일, 엑스포 아트홀), 창원(6월 26일~27일, 성산아트홀), 대구(7월 2일~5일, 대구오페라하우스), 청주(7월 10일~11일, 청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 [www.mradiostar.com](http://www.mradiostar.com)



지금 당신결의 그 사람은 정상입니까?  
뮤지컬 <마이 스케어리 걸>

인생 삼십 년을 사는 동안 연애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대학영어강사 황대우. 연애를 싫어하는 척 하지만 실은 외로움에 시달리며 커플들에 대한 피해의식까지 있다. '여자는 백해무익한 존재'라 여겼던 그는 허리병 이후,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잃어간다. 그러던 어느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지적인 이미지의 미나를 보고 한 눈에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만약 그녀의 김치냉장고 안에 싸늘한 시체들이 있다면? 뮤지컬 <마이 스케어리 걸>은 2006년 흥행한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을 원작으로 했다. 여성 관객 점유율 1위 신성록이 연기한다는 점에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4차원 최강희의 매력과는 애초에 기대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영화가 여주인공을 돋보이게 했다면, 남자주인공이 돋보이는 뮤지컬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도 흥미롭다. 사람은 누구나 로맨틱한 사랑을 꿈꾼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공존한다. 뮤지컬 <마이 스케어리 걸>은 여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현실과 수위는 다르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젊은 남녀에게 공감대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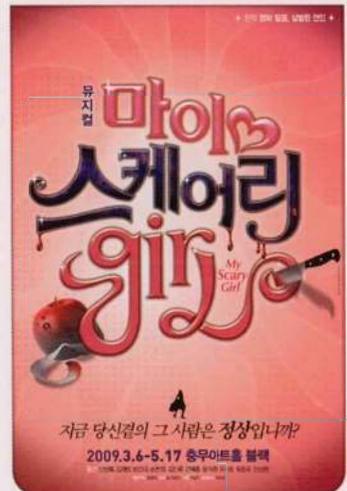
화려한 무대, 조명, 폭발력 있는 가창력보다 소소한 일상은 담은 이야기, 감미로운 노래, 사랑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봄을 담은 뮤지컬이다.

장소 : 서울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랙

기간 : 5월 17일까지

가격 : 전석 45,000원

홈페이지 : [www.myscarygirl.com](http://www.myscarygirl.com)



# 여드름 전쟁

- Goodbye! 여드름 -



▣ 일병 정인 | 32전대 방공통제부

여드름! 빨갛게 화산처럼 솟아오른 여드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자기 문답을 해봤을 것이다. “도대체 여드름은 왜 생기는 걸까? 왜 내 얼굴에만 생기는 걸까? 어떤 화장품을 써야 없어지는 걸까?” 나 또한 여드름 질환자로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던 질문이다. 그러나 이제 안심하라. 드디어 지긋지긋하다 못해 친근하기까지 한 여드름과 작별할 때가 왔다.

##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

사춘기 시절 생긴 여드름은 남성호르몬과 관련되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왕성한 피지 때문에 돌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피지샘에서 피지(일명 개기름)라는 것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 피지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 효과를 내기도 하고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 재생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생성되면 배출해야 할 피지가 많아져 모공(毛孔)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여드름 균(*Propionibacterium Acne*)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다. 결국 모공을 막고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여드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적인 호르몬 수치로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10대 후반쯤 여드름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대 이후로 여전히 돌아나는 성인 여드름은 말이 다르다. 이것은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된 비정상적인 호르

몬 작용이 성인까지 이어져 과도한 피지 분비,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습관, 현대인의 스트레스, 잦은 음주와 흡연 때문에 심해지게 된다. 이때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바로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다.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화장품 사용은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피부과에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다면 그 때부터 화장품의 병행사용으로 우리 피부는 더욱 깨끗해질 수 있다. 피부과에서 처방해준 ‘먹는 약’은 피지 억제제의 일종으로 피지 분비를 약화시키거나 줄어든게 만들고, ‘바르는 약’은 이미 돌아난 여드름을 가라앉히고 제거해준다.

## 여드름쟁이 최 상병

고질적인 여드름에 시달리던 내 선임 중 한 명이 드디어 피부과 치료를 시작했다. 여드름이 생기면 화장품으로 개선하고자 많은 질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화장품이 절대 여드름을 제거해 줄 수 없다’는 나의 강한 주장과 끈질긴 설득으로 치료를 시작한 것이다. 피부과 치료 시작 후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그의 피부는 굉장히 호전되었다. 단지 피부과 전문의가 처방해준 연고만 사용했을 뿐인데 주위에선 “얼굴이 환해졌다, 여드름이 많이 줄었다”는 말을 들을 만큼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피부과 치료는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적어도 3개월가량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나는 지난 4년간 수백 명의 여드름 질환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봤지만 그 중에는 피부과 치료를 시작했다가 중단한 사람도 있었고,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맹신하는 사람도 많았으며, 피부과를 두려워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도 대다수였다. 여드름은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이것을 모른 채 상태가 좋아지면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발생하면 "피부과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불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여드름 전용 화장품은 왜 효과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장품은 그 제조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피부의 작용이 경미하여야 하는데 여드름을 없애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작용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끝으로 피부과 치료를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 피부과 전문의는 당신의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드름 짜기**

집에서 혼자 여드름을 짜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여드름을 짜서 고름과 피를 빼내 압력을 낮추는 것은 여드름이 빨리 아물도록 도와준다. 이때 반드시 소독용 알코올이나 물을 묻힌 면봉 2개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듯 짜주도록 하자. 절대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만약 짜도 나오지 않는 여드름을 억지로 짜게 되면 흉이 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한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절대 여드름을 짜는데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드름이 지나간 흔적이 움푹 패인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압력을 낮춰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짜도록 하자.

**여드름 자국과 흉터의 차이**

여드름보다 더 보기 싫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국'과 '흉터'다. 여기서 '자국'이란 여드름이

생겼다가 사라진 자리에 색소침착이 일어나 얼룩덜룩해진 부위를 말한다. 이것은 화이트닝 제품이나 재생 크림으로 피부 각질 주기(턴오버)를 되돌려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흉터'는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없으며 오직 피부과적 레이저 시술로 살을 차오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래에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레이저 기술이 발달하여 눈에 띄는 흉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관심있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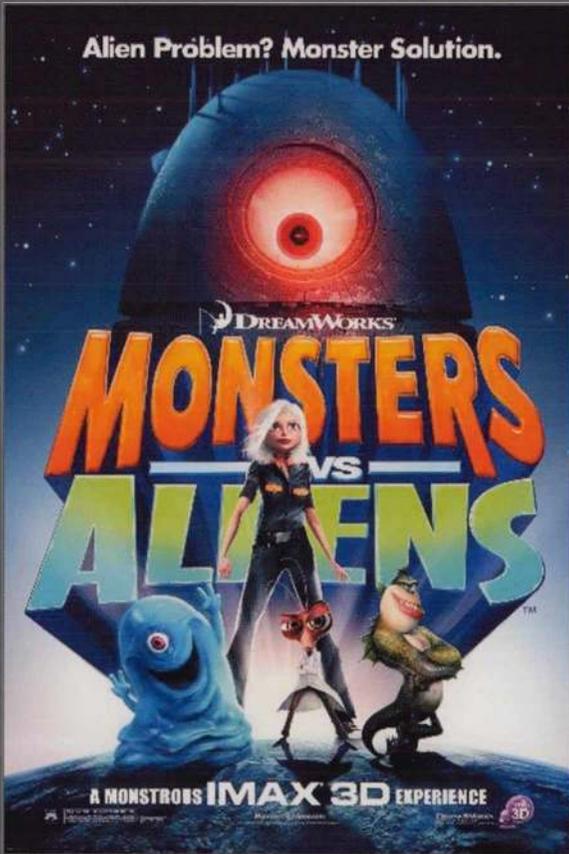
**피부과 방문하기**

피부과에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는 데 필요한 금액은 1만원 정도이고, 약국에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구입할 때 필요한 금액은 2~3만원 정도이다. 그래서 피부과에 방문할 때는 돈을 조금 넉넉히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이때 피부과에서 수십 만원에 달하는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 가입을 권유하거나, 자기 병원 이름으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구입하지 말고 처방전만 받아오는 것이 현명하다. 피부과나 한의원에서 진행되는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은 가격 거품과 불필요한 시술들이 많고, 피부과 화장품이라고 해서 더 순하거나 더 효과적이거나 더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여드름 때문에 여전히 고민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길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 여드름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파이팅! 



**여드름 피부의 스킨케어 노하우**

- ① 기름종이를 항상 휴대하자! 기름종이를 사용하여 수시로 얼굴의 피지를 닦아 주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 간혹 기름종이를 사용하면 모공이 넓어지는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
- ② 비누 대신 폼 클렌저를 사용하자! 비누는 피부를 과도하게 말리고 비정상적으로 피지를 제거해 악영향을 끼친다. 거품이 풍부한 폼 클렌저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부드럽게 세안한다.
- ③ 베갯잇을 자주 빨자!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 세탁하는 것이 위생적이며, 그 이상 세탁해도 무방하다.
- ④ 보습제 사용은 1개로 줄이자! 로션, 에센스, 수분크림, 영양크림, 나이트크림까지 혁혁. 피부가 건조할 때는 가벼운 로션만 1개 정도 오일 프리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 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생기는 줄 알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 수상한 몬스터가 떴다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영단어 타이틀매치〉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 지음

<http://blog.naver.com/midomiho>

### “몬똥! 몬스터가 떴다!”

드림웍스의 신작 3D 애니메이션 〈몬스터 vs 에이리언 Monsters vs Aliens〉은 그 설정이 〈맨 인 블랙 Men in Black〉과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맨 인 블랙〉이 두 명의 특수요원을 짝꿍 주인공으로 내세운 반면 〈몬스터 vs 에이리언〉은 몬스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이지요. 아주 특별하고 수상한 ‘몬스터 4인방’ 캐릭터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지요.

### 수상한 ‘몬스터 4인방’ 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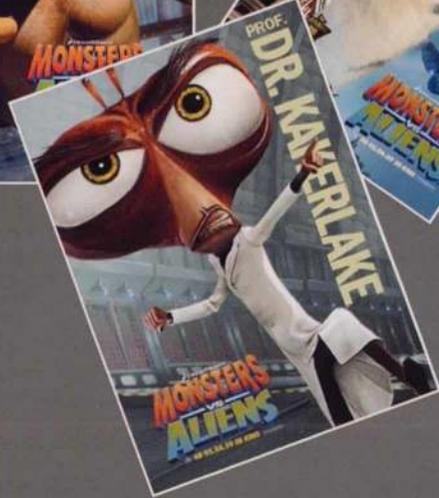
인간 캐릭터였다가 거대한 몬스터(?)로 변한 수잔 머피는 ‘거대렐라’로 통합니다. 목소리 연기는 〈금발이 너무해 Legally Blonde〉, 〈저스트 라이크 헤븐 Just Like a Heaven〉 등으로 유명한 리즈 위더스푼이 맡았습니다. 닥터 로치(doctor roach) 박사는 바퀴벌레 과학자입니다. 〈플라이 Fly〉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지요. 무모한 실험을 하다가 머리만 바퀴벌레가 된 과학자입니다. 〈몬스터 주식회사 Monsters Inc.〉의 외눈박이 괴물 마이크를 연상케 하는 B.O.B.은 물경물경한 젤라틴 몬스터입니다. 외눈박이에다가 뇌와 뼈대가 없는 ‘무뇌, 무골’

몬스터라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소스가 잘못 투입되는 바람에 토마토가 변형된 캐릭터지요.

개펄에 살면 딱 어울림직한 미싱 링크(Missing Link)는 2만 년 전 모습으로부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음직한 외관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Missing Link는 ‘인류와 유인원 중간에 있었다는 가상의 동물 an animal which was a stage in the development of humans from apes, whose bones have not yet been found’ 을 뜻하지요. 마지막 몬스터는 에벌레인 인섹토사우루스(insektosaurus)입니다. 덩치가 마천루의 사이즈를 능가하지요.

### 미모의 수잔, 몬스터들과 지구를 구하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연유로 한 팀이 되었을까요? 스포일러를 뺀 줄거리만 소개할게요. 결혼식 날 수잔은 느닷없이 날아온 운석을 맞고 실신합니다. 그런데 이 운석에 섞인 특이한 광물체에 노출된 직후 수잔은 거대렐라 몬스터로 변합니다. 이제 극비 수용소에 감금된 수잔은 그곳에서 ‘특별 관리’를 받는 몬스터들과 만나게 되지요. 외부 세계와 영원히 차단될 것만 같았던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젤러사가



지휘하는 외계인 클론들이 지구에 침공한 것입니다. 혼란을 틈 타 수용소를 빠져 나온 몬스터들은 이제 어떤 운명을 선택할까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가려둡니다.

**“지구를 구할 자는 누구?”**

이 영화는 홍보 문구도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구 중에 몇 개만 소개해보지요. 먼저, ‘Oooze gonna save us?’ 이 영문을 패러디한 국내 홍보용 문구가 ‘우리를 구할 자는 누구?’ 인 것 같습니다. ‘Alien Problem? Monster Solution.’ 도 흥미롭지요. ‘에이리언이 골치라고요? 무제한급 해결책이 있습니다.’ 쯤으로 의미를 풀면 어떨까요? 이때의 monster는 괴물이란 뜻 이외에 ‘거대한(unusually large)’ 이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만 더! ‘The Weird Will Save The World.’ 즉 ‘괴짜들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이지요. 그리고보니 한국 영화 <놈놈놈>의 ‘이상한 놈’ 도 the weird이군요. 형용사인 weird는 ‘very strange and unusual’ 인데요, weirdo의 형태가 되면 명사이며, 그 뜻은 ‘기인, 괴짜 someone who wears strange clothes or behaves strangely’ 입니다.

**폭소를 자아내는 명장면, 명대사**

재미있는 명장면, 명대사를 빠트리면 안 되겠지요? 두 개만 소개할게요. 첫째, 바퀴벌레 박사가 수잔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Might we ask for your name, madam?” 수잔은

뚜벅 “Susan.”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B.O.B.이 “사람들을 비명 지르게 만드는, 뭐시거나, 무시무시한 이름이 없어? No, we mean like your monster name. You know, what do people scream when they see you coming?” 라고 묻습니다. 수잔이 똑같이 뚜벅 대답하자 B.O.B.은 “쭈우우우우~~ 자아아~안! SUUUUSSAAANN!” 이라고 내뿜고는 “어휴, 무서워라~! [Ooh, I just scared myself! That is scary!” 라며 반응하지요.

둘째, 미싱 링크가 수잔을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아가씨가 말문이 막혔나봐! She’s speechless!” 라고 하자 B.O.B.이 “아가씨? She?” 라며 놀라워합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돼. 남자야. 가슴을 보라구! No way! It’s a boy; look at his boobies!” 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요? 영화를 보면 알게 됩니다. 참고로, boobies는 여자의 가슴(woman’s breast)을 뜻하는 boob의 속어입니다. 가슴은 두 개이므로 boobies로 표현한 것이지요. 둘 다 얼간이(stupid or silly person)란 뜻도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숨은 그림’ 찾기**

보너스 선물로 관람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몽거(Monger) 장군이 가슴에 단 훈장을 눈여겨보세요. 그 중 하나는 S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머리입니다. 초록색 괴물! 알죠, 누군지? 참고로, monger는 집미사인데요, rumor-monger처럼 쓰이면 ‘악소문이나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 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 장군이 왜 그런 요묘한 이름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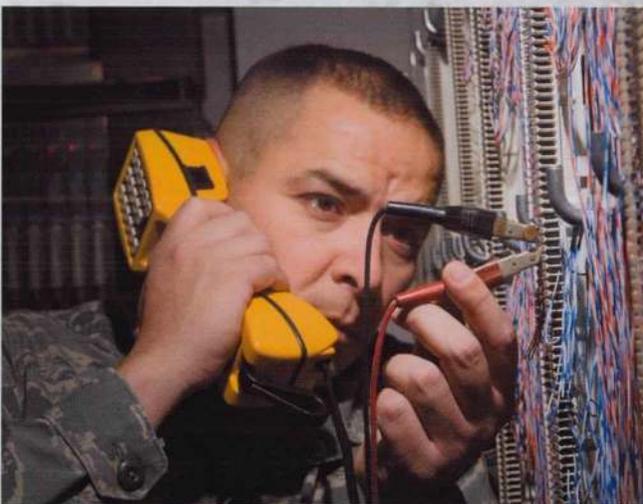
# 사이버 업데이트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번역 김원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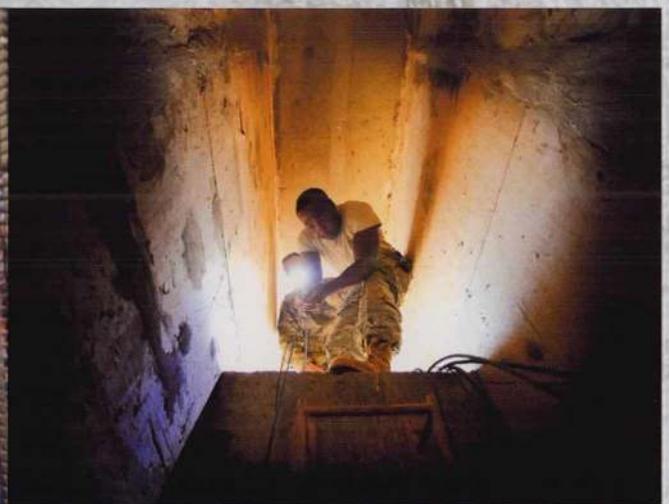
이상적인 월요일 아침, 로비 아프 병장은 컴퓨터 앞에 앉으면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진입하려고 한다. 먼저, 그는 공군 통합 액세스 카드를 리더기에 주입한다. 하이테크 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컴퓨터가 깜빡이기 시작하자 그는 사이버 공간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미 공군이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보안을 담당하는 사이버 공간은 오늘날의 전투 임무에 필수적인 요소다. “미 공군의 임무는 하늘을 비행하고, 적기와 싸우며,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는 공중,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도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군참모총장 노튼 슈워츠 장군의 말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단순히 컴퓨터를 모아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미 국방부의 정의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은 ‘정보환경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 원거리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체계 및 내장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를 포함한 정보 기술 기반체계가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



텔레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조니 에르난데즈 상사는 산안토니오 시의 방위 미디어 활동시설에서 PBX 디스트리뷰션 패널에 연결하여 전화선을 점검하고 있다. 공군 정보작전본부는 공군의 원거리 통신 스위치 시스템과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송상태를 모니터해서 인증되지 않은 모뎀을 확인하거나 전화 패턴 내지 여타 비정상적인 활동을 발견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김브러 병장과 조쉬 워런 하사는 이라크의 발라드 합동 기지 항공기 격납고 안의 통신 와이어를 검사하고 있다. 두 장병 모두 지하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와이어 두더지”들이다. 잘 보안된 통신체계는 파견활동시 사이버활동의 중요한 요소다.



로드니 프레이 뉴욕 주의 롬 공군기지의 플로이드 사이트의 수신 안테나 밖으로 나오고 있다.

전자기계가 방사, 발신 내지 반사할 경우, 이것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것은 또한 지상, 해상, 공중 및 우주와 같이 작전상의 구역과 같은 의미다. 사이버 공간은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 수송체계, 재정 및 표준설비시설(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 등을 포함하고 통제한다.

사실, 사이버 공간에서 그 나라의 지배력은 미국의 21세기 전투항공기들의 지휘 통제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오늘날의 합동전술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2007년 9월 공군은 공식적으로 공군사이버스페이스사령부(잠정직)를 설립하여 공군의 작전기능분야의 하나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을 개발하도록 조치했다.

미래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높이려는 공군은 연합 전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설립할 것이다.

“공군 내부에서 사이버 영역에 집중하는 전투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사이버 공간은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적 활동 및 정보정찰감시 활동에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군사이버스페이스사령부(잠정직) 사령관인 윌리엄 T 로드 소장이 설명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이버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구역 내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봅니다.” 우주사령부

하에서 지휘계통개편을 하면서, 공군의 사이버 전사들은 '사이버 작전사령부' 인 제24공군 예하 편제에서 전투 활동을 실시할 것이다.

이 독특한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기존의 체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 능력과 우주사령부의 뛰어난 디지털 작전 능력 사이의 관계를 활용할 것이다. 공군우주사령부하에서 새로운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구조 활동에서부터 미국을 외부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한 미군 북부사령부 및 미국 전략사령부의 임무를 지원할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우리는 보통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의 우주와 사이버 전사들의 진로개발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우주사령부 사령관 로버트 켈러 대장이 말했다. 켈러 대장은 우주사령부하에서 사이버 작전을 연계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조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두 개의 임무들을 종합하고 유사한 직능을 가진 공군장병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현재의 방어와 미래의 전투를 대비해 훈련받고 구비된 사이버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미국 전략사령부뿐만 아니라 모든 전투사령부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준다.”  
 - 윌리엄 T 로드 소장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진화는 공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무수한 노력 중 하나다. 이러한 발전은 공군이 사이버 작전을 간소화하고 공군 사이버 전사들에게 좀 더 개별적이고 전투 가능한, 그리고 고도로 효과적인 사이버 임무를 전 세계적인 합동 작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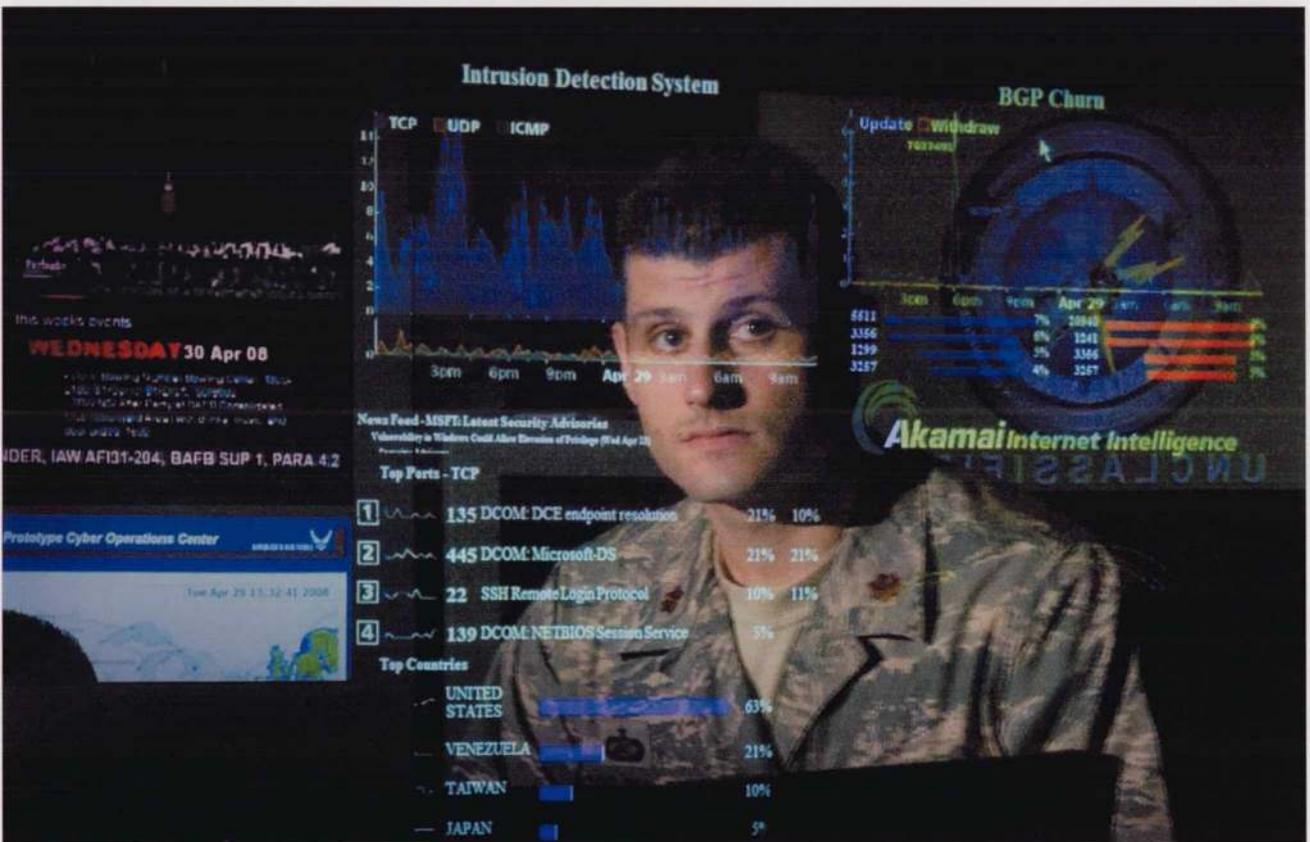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발전은 공군 내에서 어느 정도 진로변경을 야기할 것이나, 전 세계의 공군장병들은 진로변경 여부를 떠나서 공군에 대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뛰어난 전문성을 유지하고 매일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대략 2008년 4월부터 모든 장병들을 위해 기존의 진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로드 소장이 말한다. “이 로드맵에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우주 및 전자전 능력과 그 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상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군의 사이버스페이스 작전의 발전은 우리에게 비행단급 사령부의 증강, 조직적 개편, 새로운 전술적 능력 구비 및 부대 설립과 위치지정(Basing) 기회를 허락할 것이다. 공군이 제24공군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현재와 미래의 공군 팀에서 핵심 구성원으로서 미래를 주시할 것이다.

“사이버 작전사령부는 현재의 방어와 미래의 전투를 대비해 훈련받고 구비된 사이버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미국 전략사령부뿐만 아니라 모든 전투사령부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준다.”

공군 사이버 작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www.afcyber.af.mil](http://www.afcyber.af.mil)을 방문해 볼 것! 



매튜 임페리얼 소령은 사이버 작전의 일환으로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 임페리얼 소령은 루이지애나 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 네트워크 작전본부의 선임실무장교다.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심자!  
공군만의 특성화 청소년 캠프



2009

# 공군항공우주캠프



### ▶ 캠프안내

기간 : 2009. 7. 27.~7. 30.(3박 4일)  
장소 : 공군사관학교, 공군제7전투비행단  
대상 : 전국 중·고등학생 남·여 80명  
주최 : 대한민국공군, 한국항공소년단

### ▶ 참여안내

- 한국항공소년단 홈페이지  
'공군항공우주캠프' 행사 참가 ⇨ 신청서 다운  
→ 팩스, 우편, 메일(yfk@yfk.or.kr)접수

- 문의 : 02)953-7543  
- 접수기간 : 2009. 5. 18.(月)~6. 5.(金)  
- 선발방법 : 참가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참가자 확정 및 공지 → 참가비 납입 → 캠프 입소



하늘로! 우주로! 미래로!

## 2008 공군항공우주캠프

### ▶ 주요프로그램

#### 〈항공관련〉

항공기초이론, 항공과학실험(풍동실험실), 모형항공기 제작, 항공생리훈련 및 21기행대대 견학, 비행체험(C-130탑승)

#### 〈우주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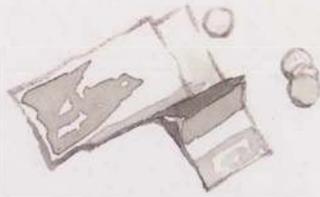
우주에서의 생존(팀파워 활동), 지·해상 생존 및 구조 훈련, 임박등반, 우주특강체험 및 동영상, 해상생환 및 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구조훈련견학, 우주탐사로봇 제작 및 경연, 사관생도와의 만남, 레크리에이션

#### 〈기타활동〉

★ 상기 일정은 부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www.yf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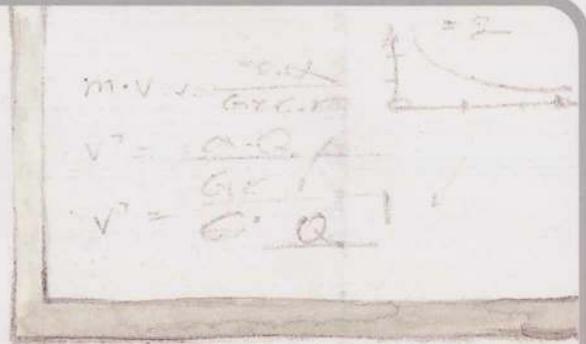


## ‘그라민 은행의 창립자’

그림 김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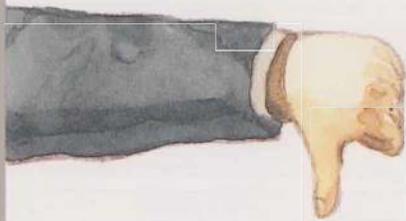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모국인 방글라데시에서 교수가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강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배운 선진국의 경제학은 몇몇의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효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방글라데시 전역에 심한 기근이 발생하여 무려 15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죽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젊은 교수는 '상어탕에만 있을 수 없다. 빈곤의 실태를 조사하자'는 다짐과 함께 빈곤한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나무로 의자를 만들어 팔던 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1달러의 빛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의자를 팔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무려 42명이나 있었습니다. 젊은 교수는 흥편이 어려워 곤욕을 치르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의 총액은 겨우 27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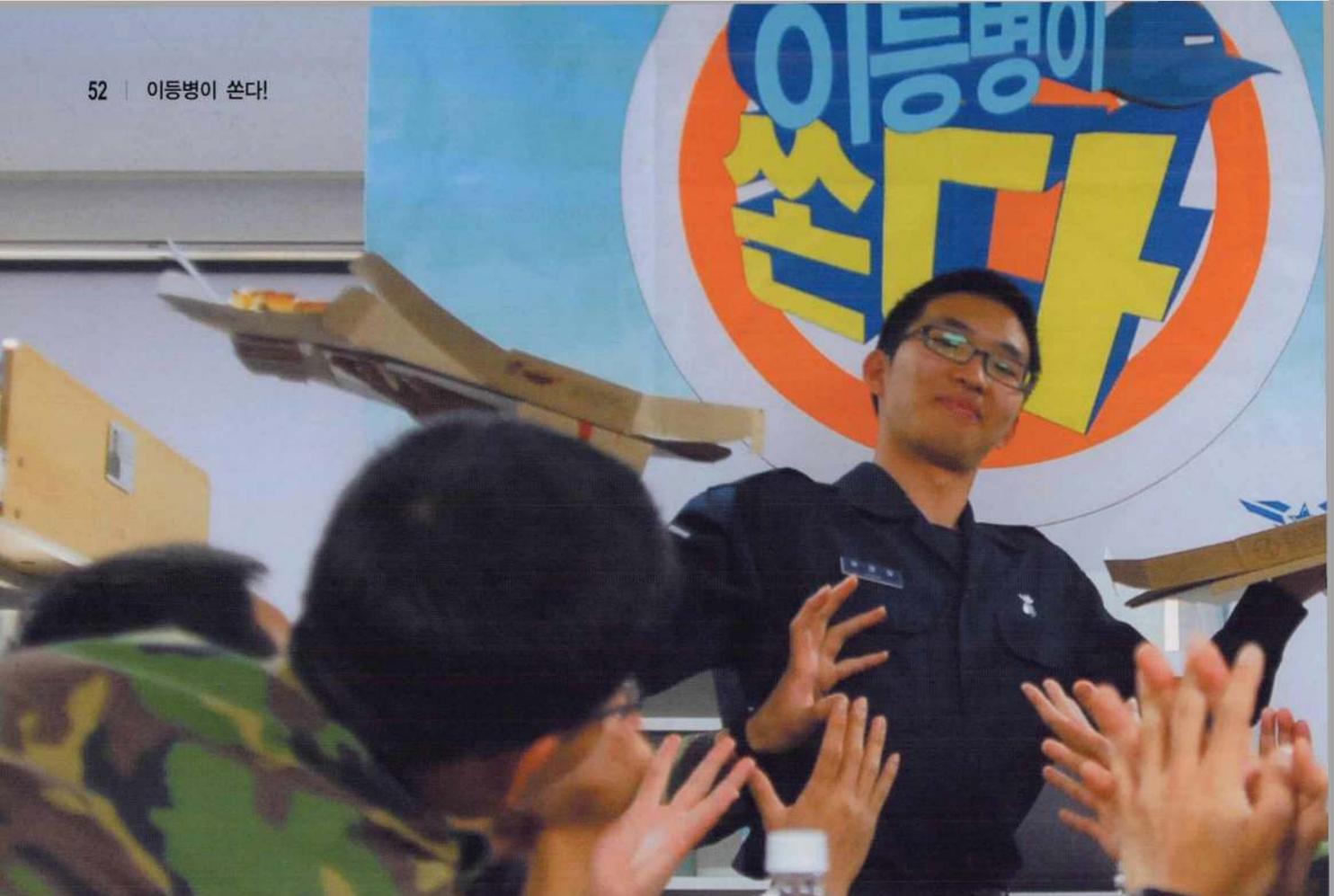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아온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정부와 은행이 빈민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그는 은행가들을 만나 '극빈층에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가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재산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미쳤다. 그들은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을 갚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액수의 대출금도 100% 회수되었습니다. 결국 이 젊은 교수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설득하여 빈곤구제 은행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극빈층에게 연간 5억 달러를 대출해주는 '그라민 은행'(시골은행을 의미)의 창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세계적인 경제난과 국가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극빈층을 구제했던 유누스 교수의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을 다시 한번 상모처럼 보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내 인생의 한 마디!

- 내 마음을 녹인 Perfect Icebreak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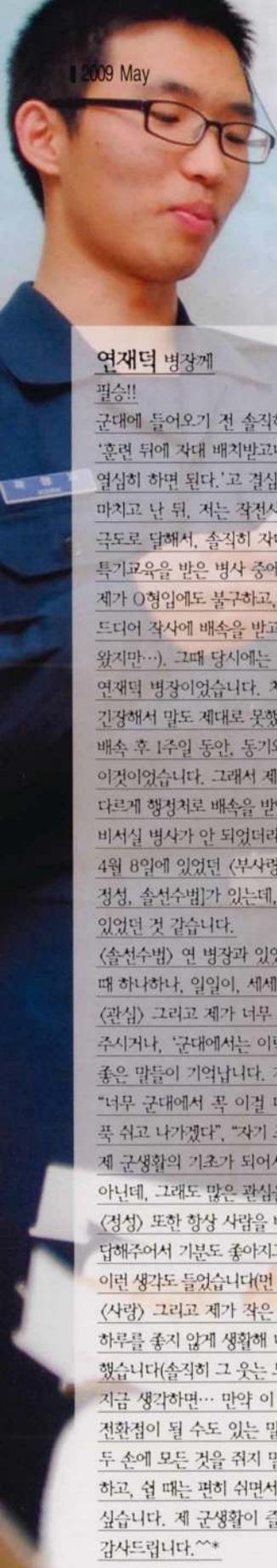
이병 **곽명재** (671기)  
작사 인사운영부 행정처

병장 **연재덕** (650기)  
작사 작전부 지휘통제실

글·사진 편집실 취재지원 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

**말** 한 마디가 가진 힘은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결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빠지기도 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한 마디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마력을 지니기도 한다. 인생을

살면서 내 가슴속에 남아 있는 단 한 마디가 있다면 곽명재 이병에게는 지금 이 순간일 것이다. <이등병이 쓴다!> 제8호 점은 갓 이병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Perfect Icebreaker! 연재덕 병장의 한 마디에 주목해보자. **★**



**연재덕 병장께**

필승!!

군대에 들어가기 전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은 힘들 것이다.', '훈련 뒤에 자대 배치받고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나니까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결심한 후부터는 그나마 마음이 편했습니다. 7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2주간의 특기교육을 마치고 난 뒤, 저는 작전사령부(이하 작사)로 배속받게 되었습니다. 작사에 배속되기 전 특기학교에서 있었을 때, 걱정이 극도로 달해서, 솔직히 자대 배치받기 싫었고 동기들과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는 직접 배속자를 제외하고, 특기교육을 받은 병사 중에 가장 빨리 자대에 배치를 받았기에, 조금은 더 걱정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걱정하게 된 것은 제가 0형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작사에 배속을 받고, 인사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선임 2명이 들어왔습니다(나중에는 다른 선임도 들어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긴장해서 누가 누구지 몰랐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들어왔던 선임 중 한 명이 연재덕 병장이었습니다. 처음 신병이더니,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취미는 무엇인지, 운동을 좋아하는지, 저는 너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고, '무조건 잘 지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배속 후 1주일 동안, 동기와 제가 주임원사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때, 예상된 사무실 배치는 [동기→행정처, 자→정통처] 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도움을 많이 준 연 병장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제 동기에 갔습니다. 3월 4일에 저는 예상과는 다르게 행정처로 배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비서실 병사가 되든지, 제 동기가 비서실 병사가 안 되었다더라면, 행정처로 배속받지 못했을 것이고, 연 병장과의 인연도 못 만났을 테니까요.

4월 8일에 있었던 (부사령관 간담회)때, 부사령관이 해주신 말씀을 빌리자면, 군대에서 병사가 해야 할 4가지[관심, 사랑, 정성, 솔선수범]가 있는데,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연 병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대에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선수범> 연 병장과 있었던 시간을 실질적으로 따져보자면 2주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가르쳐줄 때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며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선생님 같이.

<관심> 그리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으면(주임원사실에 있었을 때도)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군대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면 좋을 것 같다.'는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연 병장이 그때 해주신 좋은 말들이 기억납니다. 제가 작사에 온지 비록 2달여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 말들이 제 군생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너무 군대에서 꼭 이걸 마스터하고 나가겠다면서 아동바동 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해라", "내가 너 나이라면 꼭 쉬고 나가겠다", "자기 포지션에 맞는 일만 완벽하게 하면 된다" 이런 모든 말들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들이 제 군생활의 기초가 되어서 훌륭한 군생활의 울타를 짚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성> 또한 항상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조그마한 노력에도 항상 칭찬으로 답해주어서 기분도 좋아지고, 일도 더 잘할 수 있게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먼 훗날이지만). 600일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사랑> 그리고 제가 작은 말에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기분의 기복이 심합니다. 간혹 아침부터 우울한 날이 있어서 하루를 좋지 않게 생활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도 항상 웃으시며 사람을 대해주는 연 병장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솔직히 그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만약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군생활에 어떻게 적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말이었던 "내려놓아"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 두 손에 모든 것을 쥐지 말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면서 생활하라는 뜻, 다른 말로 '군생활에서 할 때에는 제대로 하고, 쉴 때는 편히 쉬면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제 군생활이 즐겁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그리고 짧지만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준 (연재덕) 병장께 감사드립니다.^^\*

'이등병이 쓴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파티를 열어 드리고 그 사연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mailto:tribune44@af.mil)(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mailto:tribune44@gmail.com)(인터넷)

3

# 辨茶 변다

차의 구별

辨茶

茶之妙在乎始造之精藏之得法沏之得宜優劣宜乎始鑪清濁係水火火烈香清鍋乘神倦火猛生焦柴疎失翠久延則過熟早起卻邊生熬則犯黃生則著黑順那則甘逆那則溢帶白點者無妨絕焦者最勝

## 전통 수제차(手製茶)의 분별 茶神傳 3장 辨茶

**돌** 술 물 끓는 소리에 마음을 두고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은 청복(淸福)이며, 그때 차(茶) 향기 속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과 같은 것이다. 지리산에서 이슬을 머금고 자란 차는 향기와 인연하여 해마다 이때가 되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바람으로 화개동 모암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차 농사를 짓는 할머니 맥을 찾는다. 화개동은 옛날부터 야생 차나무가 있었고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제차를 만든다. 연세(年歲)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 이름을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녹차(綠茶)라 하지 않고 짝살차(작설차의 경상도 사투리)라 한다.

차(茶)란 것은 차나무에서 자란 잎을 채취하여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발효차(發酵茶-Black Tea-홍차)가 되고, 발효를 시키지 않으면 그냥 차(茶-Tea)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녹차(綠茶)라 한다. 녹차란 말은 15~6세기부터 서부 유럽이 차(茶)의 효능을 알고 동양의 차(茶)를 경쟁적으로 구하기 시작해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1839~'42) 이후 1900년대 일본이 차(茶)를 유럽에 수출할 때 사용한 상표가 Green Tea(녹차-綠茶)이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차(茶)를 녹차라 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각 사찰에는 선방(禪房)이 있고, 도(道)를 구하는 스님들은 늘 차(茶)를 마시며 수행(修行)을 하기에 다도(茶道)라 하지 녹다도(綠茶道)라 하지 않으며, 설과 추석 명절에 차례(茶禮) 지내지 녹차례(綠茶禮) 지낸다 하지 않는다. 우리 역사와 문화, 그리고 풍습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 이 땅의 후손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㉞



글·사진 **준위 전재인** | 제11전투비행단

전재인 준위는 차례(茶禮)문화 연구와 전통 다도(茶道)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한문으로 된 다신전을 사진으로 표현한 <사진으로 읽는 다신전>을 출간했으며, 생활 속의 일제식민 잔재 청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만든 차의 분별

1. 차에는 오묘함이 있다.  
 차나무는 하늘의 태양의 빛을 받아 탄소동화작용(炭素同化作用)으로 카테킨(Catechin)과 카페인(Caffein)을 형성시켜 살균(殺菌), 해독(解毒), 지혈(止血), 소염(消炎) 작용과 각성(覺醒), 강심(強心), 이뇨(利尿) 작용하는 식물이다.
2. 차의 신비함은 만들 때의 정성과 건조하게 잘 보관하여 차를 우려낼 때의 법을 지켜야 한다.
3. 차의 좋고 나쁨은 만들 때 가마솥에서 뒤는 방법에 있으며 청탁은 물과 불의 관계이다.
4. 솥의 온도가 높으면 향이 맑고 낮으면 다신이 약하다.
5. 솥의 화력이 너무 강하면 찻잎이 생으로 타고, 약하면 취색을 잃게 되며, 찻잎을 솥에서 오래 뒤으면 너무 익고, 빨리 꺼내면 설익는다.
6. 찻잎이 너무 익으면 황색이고, 설익으면 흑색이 되며, 불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은 달고, 온도 조절이 잘못된 것은 떼다.
7. 흰점을 띤 것은 보통이며, 탄 것이 없으면 가장 좋다.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공군」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전재인의 일상잡화사〉에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3·1 운동의 발자취를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다음호에는 우리나라 각지에 산재한 "이색박물관 탐방기"를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매월 「공군」지를 보면 마음이 설립니다. 20여 년 전 공군에서 군복무하던 시절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발전한 현재의 공군을 만나 볼 수 있어 늘 반갑고 대견스럽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강주찬, 부산시 해운대구 -

#2

〈3월의 공군 역사〉, 공군지를 볼 때마다 나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공군 훈련병으로 대전 훈련소에 입소하던 날이 3월 2일이었습니다. 공군의 역사 속에 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얼마 전 공군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공군의 역사와 항공기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한편, 공군에서 활약했던 항공기 전시장에서는 아쉬

움이 있었는데, 박물관에서 고생하는 큐레이터를 만나고 싶습니다.

- 김주원, 충북 청주시 -

#3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공군」 기사를 읽었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창군 6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처음 보는 집자에 유용한 내용이 곁들여져서 더 재밌고 신기한 거 같았어요!

- 정새봄, 충남 논산시 -

#4

올 겨울 너무 추워서 그러지 「공군」의 봄 내용이 훨씬 풍기는 기사들을 읽으니 몸도 마음도 날아갈 것 같네요. 특히 이번호 〈Bird-Alert〉을 보니 정말 저도 아닐로 그 사진기를 꺼내 새 봄날 탐조도 하고 아름다운 새소리도 듣고 싶어졌습니다. 방에만 있었더니 새봄이 이렇게 가까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새봄에는 한 박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자연을 탐미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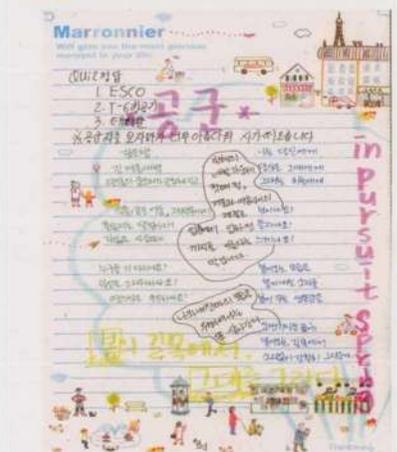
- 박찬용, 전북 남원시 -

#5

〈생각하는 그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다시 확인해보고, 나를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봄·여름철 우리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산나물의 종류와 나물이 우리 몸에 주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에 대해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 장익선, 충북 청주시 -

#6



- 양서민, 전남 여주시 -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935, 02) 506-693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5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5월호 퀴즈정답

1.

2.

3.



# Quiz

월간 「공군」 5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5월 25일까지

1. 이스라엘 출생으로 어린시절 소아마비를 앓았던 다리를 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시네마 천국>에 나오던 감미로운 음악과 <선들러 리스트>에서 애절한 선율을 연주했던 음악가는 누구인가?
2. 공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협력하여 2009년 5월 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3년에 개장할 시설의 명칭은 무엇인가?
3.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극빈층에게 연간 5억 달러를 대출해주는 그라민 은행의 창립자는 누구인가?

##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mailto: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mailto: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935/042-552-6935

### ※ 3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ESCO
2. T-6 건국기
3. 인사동 태화관

당첨자

충북 청주시 김주원  
충남 논산시 정세복  
전북 남원시 박찬용  
전남 여수시 양서인  
부산 해운대구 강주찬  
충북 청주시 장익선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http://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 한국 공군 창군 60주년과 새로운 60년을 향한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The 60th Anniversary of ROKAF Foundation and  
the path for New 60-year Improvement



## 제1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ir and Space Power

- 일시: 2009년 6월 24일
- 장소: 공군회관 그랜드볼룸(3층)
- 주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후원: 공군본부

\* 세부일정은 15p를 참조하세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회의관련 문의처 : M,P 010-5076-825  
Fax 02-393-764  
E-mail parkjji@nate.com